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VER STORY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리사이틀

COLUMN

정의(定義)로 읽는
문화정책

세계의 콘서트홀
오디토리엄
파르코 델라 뮤지카

2024 4월 Vol.388

MISKY Trio

© Andrej Grilc

Busan Symphony Orchestra

56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ubscription Concert

— 낭만의 온도 —

PROGRAM

브루흐

M. Bruch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26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Op.26

브루크너

A. Bruckner

교향곡 제4번 E^b장조 작품104 '로맨틱'

Symphony No.4 in E^b Major, WAB.104 'Romantic'

2024. 4. 28

Sun 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Choong-Ke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송지원(바이올린) Ji-Won Song



Bruckner

Bruch

BSO

주 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 원



부산광역시



SHINSEGAE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부경대학교

승월타올 · 승월우산

(주)와인테크놀로지

논의원 안과

남산정 요양병원

B&C PVD COAT(주)

영심차과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입 장 권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 할인)

예매처 interpark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24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술감독 손일환

조성현

박규민

구민우

2024.
4.19.금
-
4.26.금

권민석

금정 클래식 위크

배진아

박종해

정지원

김다솔

GEUM JEONG CLASSIC WEEK

1st.TOUCH

프로젝트 합스

금정문화회관

위필하모닉스

안상준&김지훈

김동기 트리오

알테무지크서울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입장연령 8세 이상 주최 금정문화회관 예매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문의 051.519.5661~4

61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BPO and Kirill Karabits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지휘 키릴 카라비츠
첼로 문태국

리스트 / 교향시 제6번 "마제파"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2번
스트라빈스키 / 페트르슈카 (1947 ver.)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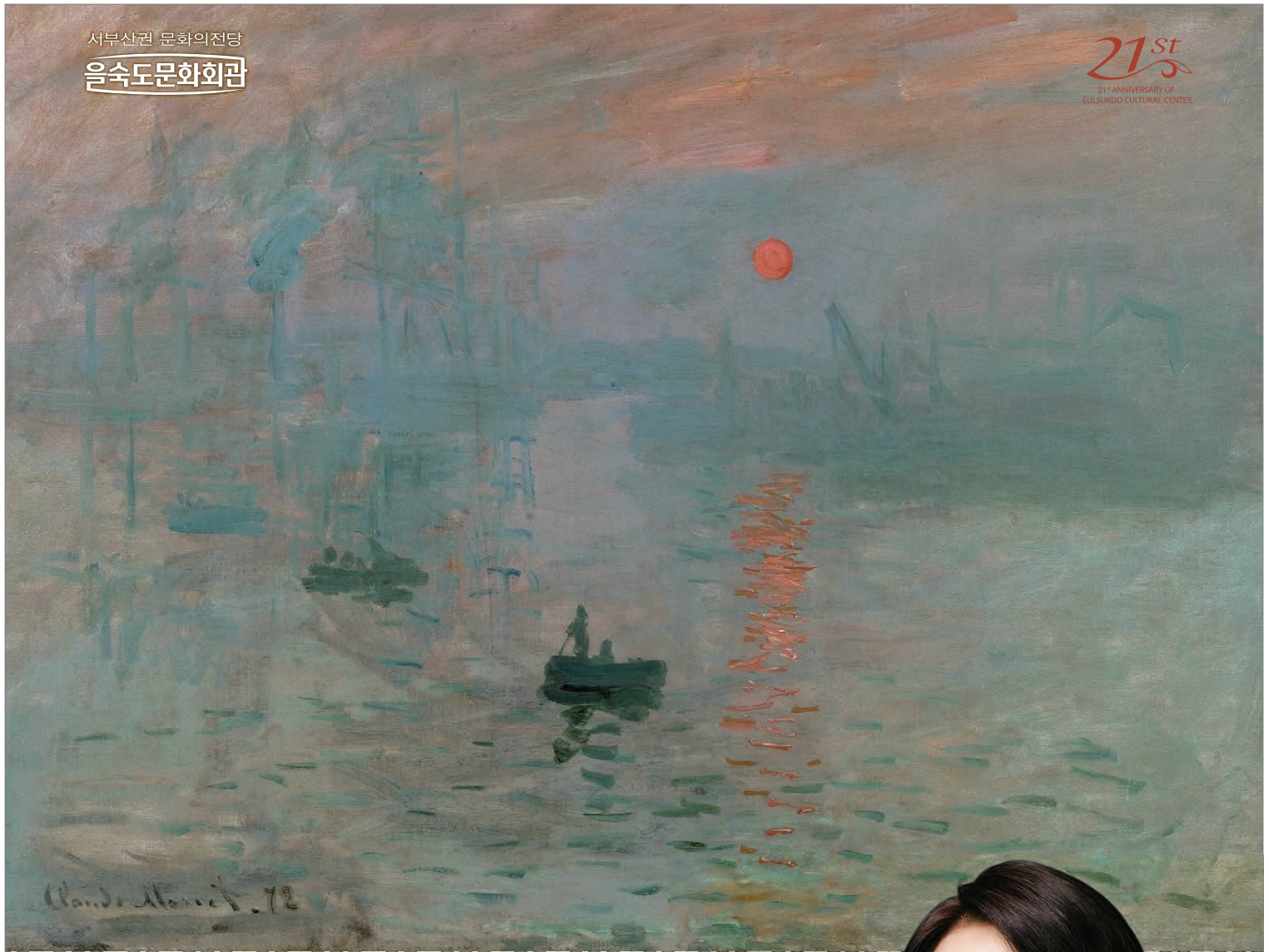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서부산권 문화의전당

을숙도문화회관

21st
21st ANNIVERSARY OF
EULSUNDO CULTURAL CENTER



을숙도문화회관 | 모네와 음악의 만남

아트클래스

- 시리즈 IV -

전원경의 “모네가 그린 봄”

영화와 클래식 명곡의 장르융합과 재미있는 미술사 해설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공연·교육 프로그램

2024. 4. 27. | 토 | pm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을숙도문화회관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입장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문의 051.220.5811~4 관람료 1층 1만원 / 2층 5천원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아이 첫 오페라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W.A.Mozart Die Zauberflöte

연출 및 해설 이의주

음악코치 권수빈

기술감독 박재현

무대·영상디자인 길고은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영상중계·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연출 전하라 자막 김경희

출연

타미노 김동녕, 김준태

파파게노 시영민, 유용준

파미나 김은영, 박예은

밤의 여왕 박나래, 김승현

자라스트로 손상혁

파파게나 이유빈, 박예은, 송혜진

피아노 권수빈

2024. 4. 24. 수 ~ 5. 3. 금 오전 10:30 *주말제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4월호 Vol.388



10



20



32

Column 08 정의로 읽는 문화정책

세계의 콘서트홀 ② 10 오디토리엄 파르코 델라 무지카, 로마

Cultural Issue 14 일본의 '뮤지컬 한류', 거품 빠진 뒤 단단히 뿌리내렸다

Cover Story 1 20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리사이틀

Cover Story 2 22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Preview 31

문화가 화제 39 2024 제42회 부산연극제

Review 42

Program Guide 45

New Book 57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4년 3월 25일

편집인 이기종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정의^{定義}로 읽는 문화정책

•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2022. 9. 27. 일부 개정)

우리가 떠올리는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모두 같을까? 국내외 학자들이 자신의 언어 세계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다. 그나마 가장 사회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법령이다. 그렇다면 법령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정의는 1972년에 제정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등장한다. 법률적 정의가 중요한 것은 그 개념 확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비 문화예술로 나누어지고 문화예술 속 범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지원조직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정 이후 2023년까지 무려 40회나 개정되어왔다. 그중 1995년과 2007년에는 전부 개정되었으니, 두 번을 새로 제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가 기술된 제2조의 개정은 1987년, 1995년, 2013년, 2022년 총 4번 이루어진다. 그만큼 문화예술의 현장과 그에 따른 이슈가 빠르게 변화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현대사가 흘려온 물결의 파고와도 높낮이를 같이 하고 있다.

처음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8월은 박정희 정부인 제3공화국 때였다. 제4공화국이 12월에 시작되었으므로 그 언저리 즈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 제정 당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다 할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산이 없던 제1공화국이나, 불과 11개월에 불과했던 제2공화국 때와는 달리 제3, 제4공화국 때는 민족의식 함양, 문화유산 보존, 문예 진흥을 기치로 제1, 2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는 중앙뿐 아니라 지역까지 문화정책 전달체계를 갖춘 것이기도 했다. 광주 시민의 피를 딛고 일어난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여의도광장에서 전국대학생 민속 국학 큰 잔치를 열었다. 전국에서 동원된 대학생들만 6천여 명이었던 <국풍 21>은 예술을 도구화한 문화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새 문화정책도 주창했으나 문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진 않았고,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과 같은 거대한 문화시설들이 지어졌다. 이른바 과시적 공공성이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런 중에도 문화예술의 영역은 일부 확장되었다. 1987년 개정문에서는 무용, 연극, 영화가 더 포섭되어 있다.

또 한 번 문화예술 정의 개정이 있었던 1995년은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 이른바 문민정부 때였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제국의 영토를 빠르게 넓혀가던 시기였다. 문화체육부 내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었고, 1995년 개정문에서는 문화예술 영역 안에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1997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곧 IMF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기 악화, 고용 불안정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았다.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은 한층 선명해졌다. 이 시기 예술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이 분리되었으며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률뿐 아니라 문화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어졌다. 1999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설립,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이 그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계속 이어져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2년 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3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시 문화예술의 정의 속으로 만화가 들어왔다.

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9월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때이다. 문화예술 영역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 모두 들어가게 되면서 문화예술은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70년대생인 나로서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이 문화예술의 자장 안으로 들어온 것에 꽤 놀랐었다. 학창 시절 내내 학교 앞 만화방, 게임실(그때는 오락실이라고 불렀다)은 암묵적이긴 해도 어느 정도 금지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재미가 문화 속으로 입장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생물이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정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제정 당시 문화예술의 범주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총 5개 영역이었으나 현재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과 같은 16개 영역 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됨으로써 그 세계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도 연예나 출판과 같은 문화산업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응용미술, 사진, 건축,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산업 콘텐츠 영역이 더욱 정교하게 세분화 되었다. 또한 20세기 말인 1987년, 1995년 개정 시에는 무용, 연극, 영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과 같이 기존의 장르들이 추가되었다면, 21세기 초인 2013년, 2022년 개정 시에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같이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장르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방식에 있어 많은 형식 변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고, 특히 4차 산업 과학기술 기반의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영역에의 지원이 확대되어 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창출을 중요시하는 제도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의 근간인 기초예술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자본화·과학기술화되는 첨단 문화의 소용돌이가 인간성 소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 주체자로서 응시해야 한다. 정책은 법과 제도를 구성하고, 특히 문화에 대한 정책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오디토리엄 파르코 델라 뮤지카, 로마

Auditorium Parco della Musica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2



로마는 이탈리아, 아니 유럽과 인류 문화의 중심이다. 그런데 공연 문화로 한정하면 다소 이야깃거리가 없어 보인다. 정치적 영향력,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을 놓고 볼 때 로마는 이탈리아 No.1 도시임에 이견이 없지만 밀라노의 라 스칼라, 아레나 디 베로나, 피렌체의 5월 음악제 등 축제와 공연장만 놓고 보면 살짝 뒤처지는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로마의 너무 많은 역사적 콘텐츠에 가려진 착시일 뿐 공연 문화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이다.

우선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과 더불어 이탈리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로마 오페라 극장(Teatro dell'Opera di Roma)이 있다. 1877년 이 극장을 설립했던 도메니코 코스탄치의 이름을 따왔기에 코스탄치 극장(Teatro Costanzi)이라 부르기도 한다.

야외 공연이 가능한 여름이 되면 또 하나의 이름을 로마 오페라 웹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카라칼라 욕장이다. 과시욕이 컸던 로마의 황제였던 카라칼라는 로마에 대 목욕장을 건설하였는데 5년의 공사 끝에 217년 완공되었다. 로마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냉탕과 온탕으로 구분되었고 아름다운 실내 장식과 야외 정원으로 유명했는데, 고트족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폐쇄되었다.

꽤 오랫동안 유적으로 방치되었던 카라칼라 욕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갈라콘서트가 이 곳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주변 메타의 지휘로 좀처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3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한자리에 모여 6천 명의 관객



3 파르코 델라 뮤지카 공사 당시 발굴된 유적현장

앞에서 불렀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칸소네는 밀리언 셀러 음반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카라칼라 욕장이 훌륭한 야외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다. 이후 지금까지도 로마 오페라 극장, 카라칼라에서 정규시즌공연과 여름 시즌 야외 오페라가 공연된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

먼저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585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 중 하나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 등이 로마와 음악의 수호 성녀 체칠리아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교육기관을 설립한데서 출발한다. 이후 1919년 국립음악원으로 승격되어 독자적인 음악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 우수한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 등이 동문이다. '로마의 소나무'를 작곡한 레스피기가 이곳 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소속인 동명의 관현악단(오케스트라)은 1886년 창단되었는데, 당시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극장 소속이 대부분이던 시절, 이탈리아 최초로 관현악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악단으로 출범했다. 부산시립공연장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지휘자 정명훈이 음악감독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파르코 델라 뮤지카

그렇다면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은 어디서 연주를 할까? 오늘 소개할 파르코 델라 뮤지카(Parco della

Musica)이다. 파르코 델라 뮤지카는 프리츠커 수상자이기도 한 제노바 태생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설계로 2002년 개관한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센터이다.

사실 꽤 오랫동안 로마에는 변변한 콘서트홀 하나 없었다. 이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소속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무대로 사용했던 아우스테오 극장이 1936년 문을 닫으면서부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체 건축비 1억 4천만 유로(당시 환율로 1,600억 원)가 투입된 파르코 델라 뮤지카는 -이탈리아어로 Parco는 영어로 Park, 즉 공원이다- 이름에서 보듯이피 글자 그대로 녹지와 광장으로 둘러싸인 음악공원이다. 전체 면적 4만 평방 제곱미터가 넘는 녹지와 광장에 3개의 크기가 다른 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1993년 발표 이후 진행된 공사가 10년 가까이 지체되었는데, 당시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고대 로마의 유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경 로마군대의 장교와 지주들이 살던 주택가였다.

파르코 델라 뮤지카는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한 2,700석의 대극장 오디토리엄을 비롯한 챔버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공연을 위한 1,200석의 중극장, 그리고 독주회를 위한 700석 규모의 소극장이 각각 독립 건물로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자리하고 있다. 2002년 개관식 지휘는 당시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의 음악감독인 정명훈이 맡았다. 이날은 로마정도 2,275주년을 맞아 시내 전역에서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다.



4 지휘자 정명훈과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파리의 풍피두,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설계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 했고, 프랑코 자가리는 야외



5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관현악단과 합창단이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엘리아(Elias)'

공간의 조경을 맡았다. 대극장은 살라 산타 체칠리아(Sala Santa Cecilia), 중극장은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의 이름을 따서 살라 시노폴리(Sala Sinopoli), 그리고 소극장은 작곡가 고프레도 페트라시의 이름을 따서 살라 페트라시(Sala Petrassi)라고 명명되었다. 여기서 살라(Sala)는 직역하면 이탈리아어로 방이라는 뜻이지만 비교적 대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3개의 크기가 다른 오디토리엄은 방음을 위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로비를 통해 바닥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파르코 델라 뮤지카의 외부 건축양식은 사진에서 보이는 외관 느낌대로 '덩어리', '딱정벌레', '거북이' 및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필자는 작년 이맘때쯤 파르코 델라 뮤지카에서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관현악단과 합창단이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엘리아(Elias)'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투어 연주를 자주 하는 팀이라 여행 중 곳곳의 공연장

에서 자주 만났었지만, 정작 그들의 본산인 살라 산타 체칠리아에서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운이 좋았다. 게다가 '엘리아'는 합창단과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곡이라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조성된 지 20년에 불과한 파르코 델라 뮤지카의 외관은 독특한 외피 탓에 세월이 조금은 더 흐른 듯 보였지만, 내부의 모습은 최신의 공연장 모습 그대로였다. 무대를 둘러싸고 앞뒤 좌우로 둘러싸고 있는 객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천장은 나무로 마감된 반사판이 객석으로 이어져서 소리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의 공연장은 대부분은 이른바 극장(Teatro)이라 불리는 오페라극장이 그 중심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전용극장인 콘서트홀이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주요도시들을 걸음했지만, 금방 떠오르는 곳은 볼로냐의 만조니(Manzoni)와 오늘 언급한 파르코 델라 뮤지카 정도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간을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이 오디토리엄(Auditorium)이라 부른다.



일본의 '뮤지컬 한류', 거품 빠진 뒤 단단히 뿌리내렸다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 2월 일본에서는 한국 뮤지컬 4편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사랑의 불시착> <전설의 리틀 농구단> <스모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등 4편 모두 일본에서 좋은 흥행성적을 기록했다. <사랑의 불시착>만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프로덕션이고, 나머지는 일본 제작사가 저작권으로 취득해 현지 배우들을 출연시킨 라이선스 프로덕션이다.

<사랑의 불시착>은 도쿄 요미우리홀(1,100석)에서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와 한국 제작사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아스틴카멜(구 T2N)이 공동으로 선보였다. 뮤지컬 배우들을 캐스팅했던 한국 프로덕션과 달리 일본 프로덕션은 남자 주인공인 이정혁과 구승준 역에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윤산하와 진진, 그룹 더보이즈의 상연을 캐스팅했다.

일본 공연 초기에는 윤산하와 진진, 상연의 영향으로 10~20대 한류 팬들이 많이 왔으나 중반 이후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한국 뮤지컬을 좋아하는 30대에서 50대 팬들의 관람으로 이어졌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켰으며 이후 일본의 4차 한

류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에선 두 차례의 공연 모두 흥행이 좋지 않았지만, 일본에선 이번 26회 회차 대부분이 매진을 기록했다. 오는 7월 도쿄에서 2주간 재공연이 있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일본 배우들이 출연하는 라이선스 공연도 계획돼 있다.

라이선스 프로덕션으로 선보인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도쿄 쇼게츠홀(526석)에서 16회, 오사카 마츠시타IMP홀(857석)에서 4회가 공연됐다. 개막 전에 이미 좌석의 90%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이 작품은 국내 지역 문예회관(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발한 작품이 민간 제작사(아이엠컬처)에서 상업화된 이후 해외 라이선스 공연까지 성사된 첫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다. 두 작품 외에도 <스모크>는 작은 극장이긴 하지만 두 달 넘게 공연됐으며,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한국 공연 이후 1년도 채 안돼 일본에서 라이선스 공연되는 기염을 토했다.

2월에 한국 뮤지컬이 4편이나 잇따라 올라간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국 창작뮤지컬인

<마리 쿼리> <핑크 베리 스트로베리> <비더슈탄트> <엑스칼리버> <다윈의 악의 기원> <베토벤> 등이 일본에서 라이선스 공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베토벤>은 한국 EMK뮤지컬컴퍼니의 연출, 안무, 무대, 영상, 소품, 조명 등이 동일하게 공연되는 세미 레플리카(Semi-Replica) 프로덕션 형식으로 선보여졌다. 이들 공연은 일본에서 한국 뮤지컬이 K팝이나 K드라마 등에 이은 한류 콘텐츠로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소위 '뮤지컬 한류'는 2010년 동방신기 출신의 김준수가 뮤지컬 <모차르트>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을 겪느라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김준수가 무대에 나오자 일본 팬들이 앞다퉈 <모차르트>를 보러 서울에 온 것이다. 이후 한국 뮤지컬 제작사들은 아시아에서 두터운 팬덤을 가진 K팝 스타를 앞다퉈 캐스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뮤지컬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본 일본 공연계와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싶었던 한국 공연계가 손을 잡게 됐다.

2011년 일본 대형 제작사 쇼치쿠가 그룹에이트의 <궁>과 CJ E&M의 <미녀는 괴로워>를 선보인 것은 일본에서 뮤지컬 한류의 출발점이 됐다. 두 작품 모두 K팝 그룹 초신성의 성모, 카라의 규리 등 일본에서 인기있는 아이돌 스타들을 캐스팅했다. 이후 일본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이 2012년 7편에 이어 2013년엔 18편까지 늘었다. 이들 뮤지컬은 대부분 한국 배우들이 공연한 프

로덕션이었다. <삼총사> <잭 더 리퍼>처럼 좋은 성과를 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부진한 흥행성적을 남겼다.

지나치게 높은 티켓 가격 등 도를 넘은 스타 마케팅 상술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에서 뮤지컬 한류의 거품도 점차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한국 뮤지컬을 9편 연속으로 선보였던 아뮤즈 엔터테인먼트의 프로젝트가 대규모 적자로 끝난 이후 전체 공연 편수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뮤지컬 한류가 K팝의 인기에 기댄 파생상품에 불과하다는 비판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뮤지컬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됐다. 라이선스를 통한 현지화로 K팝 스타 팬에게 의존하던 것을 넘어 한국 뮤지컬의 작품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기량있는 창작진과 팬층이 두터운 배우들을 기용하는 한편 일본 공연계 시스템에 맞게 일찌감치 홍보와 마케팅을 한 덕분이다.

2014년 일본 대형 제작사 도호의 자회사인 도호예능이 선보인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과 <블랙 메리 포핀스>는 현지화로 바뀐 흐름을 잘 보여준다.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은 도쿄 등 7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흥행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듬해 바로 속편인 <셜록 홈즈-블러디 메리>의 3개 도시 투어로 이어졌다. <블랙 메리 포핀스> 역시 같은 해 도쿄 초연에서 호평을 얻어 2016년엔 4개 도시 투어가 이뤄졌다.

도호가 2016년 선보인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대극장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 일본에 라이선스가 판매된 사례다. 이후 도호는 EMK뮤지컬컴퍼니의 <마리 앙투아네트> <웃는 남자> <베토벤>, 서울예술단의 <다윈의 악의 기원> 등을 잇따라 공연하는 등 한국 뮤지컬 수입에 적극적이다. 올해도 <나빌레라> <팬레터>의 라이선스 공연이 예정돼 있다.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경우 일본 제작사 가운데 LDH 재팬과 아틀라스가 적극적이다. LDH 재팬은 일본의 대표적 댄스보컬 그룹 'EXILE'을 모체로 한 기업으로 2021년부터 공연 사업에 진출했는데, <인터뷰> <차미>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시데레우스> <비더슈탄트> 등 한국 뮤지컬의 라이선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 아틀라스 뮤지컬은 2016년 <김종욱 찾기>를 시작으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더 데빌> <호프> <스모크> <블루레인> 등 10편에 가까운 한국 뮤지컬을 라이선스로 올린 바 있다.

일본의 뮤지컬 한류는 점점 판을 넓히고 있다. 얼마나 더 성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 일본 도호의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의 한 장면. 이 작품은 원래 도호가 2006년 제작한 것을 한국 EMK뮤지컬컴퍼니가 2014년 재창작했다. 그리고 도호가 다시 2018년 EMK뮤지컬컴퍼니로부터 공연권을 얻어 무대에 올리고 있다. ©Toho

2 일본 도호예능이 라이선스를 얻어 제작한 뮤지컬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의 한 장면. ©도호예능

SUN	MON	TUE	WED
	1	2	3
		뮤지컬 '드라큘라'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밝은누리(1566-9621))	뮤지컬 '드라큘라' 14: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밝은누리(1566-9621))
7	8	9	10
뮤지컬 '드라큘라' 14:00, 19:0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밝은누리(1566-9621))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Night of the 20th Century' 18:00 중 전석 2만원/양상블 자비에(010-4006-0059)			
14	15	16	17
제37회 전국 청소년(유·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10:00 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21	22	23	24
장애인 날 기념 음악회 18:00 대 아르델필하모닉오케스트라협동조합 (010-4175-1712)			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19:30 대 8만원·7만원·5만원·3만원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6회 정기공연 중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4)
28	29	30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6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온도' 19:00 대 3만원·2만원·1만원/BSO(621-4577) 소프라노 이지현 귀국독창회 17:00 중 YJ클래식스(010-9901-6885)			

ED	THU	FRI	SAT
3	4	5	6
0, 19:30 만원·8만원 (621)	뮤지컬 ‘드라큘라’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썬밤은누리(1566-9621))	뮤지컬 ‘드라큘라’ 19:3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썬밤은누리(1566-9621))	뮤지컬 ‘드라큘라’ 14:00, 19:00 대 17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썬밤은누리(1566-962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15:00 중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	11	12	13
		더뉴앙상블 ‘바이올린 최종완 초청연주회’ 19:30 중 더뉴앙상블(988-3087)	◆(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정치학자 김지윤’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18	19	20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I’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국악작곡가회 제23회 연주회 ‘새로운 소리 여행’ 19:30 중 부산국악작곡가회(010-2448-082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키틀 카라비츠’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4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4 14:00, 18:00 대 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만 15세 이상 관람) (썬하늘이엔티(1688-6675))
4	25	26	27
밤 ‘가장 아름다운 노래’ 만원/부산문화(1600-1803) 회 국악정기연주회 19:00 -1232)	2024 부산음악대축제Ⅰ ‘신인음악회’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ONEPIECES IN CONCERT ‘WE ARE!’ 19:30 대 12만원·9만9천원·6만6천원·4만4천원 KNN방송교향악단(850-9568) 2024 부산음악대축제Ⅱ ‘실내악의 밤’ 19:30 중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6회 음악정기연주회 17:00 대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강령 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 ·챔버홀: 2월~8월 ·사랑채극장: 1월~6월	전시실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25일(목)~4월 28일(일) (사)국민예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245-2521)

SUN	MON	TUE	WE
	1	2	3
7 뮤지컬 ‘천정암마’ 14:00 대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7만원 리바이트 유나이티드(02-6498-0403)	8	9	10 꾸러기음악회 ‘봄이오는소리’ 대 5만5천원 · 4만4천원 꾸러기예술단(02-5498-1111)
14 지브리&히사미시조 OST 콘서트 ‘The Orchestra’ 16:00 대 11만원 · 9만원 · 6만원 · 4만원 두남재엔터테인먼트(02-6292-9368, 9370)	15	16	17 2024 부모공감힐링토크쇼 소 부산유아교육진흥원(2024-04-17)
21 뮤지컬 캐치! 티니핑 ‘두근두근 상어롱 콘서트’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 · 4만4천원 /썬하늘이엔티(1688-6675)	22	23	24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02-2212-1111)
28 바다탐험대 옥토넷 시즌3 ‘바다 넘어 육지까지’ 11:00, 14:00 대 전석 6만6천원/윙컴퍼니(1670-9788) 정자경 가요금병창 ‘여정’ 14:00 소 전석 1만원/정자경(010-9449-3492)	29	30	31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3, 3115)

ED	THU	FRI	SAT
3	4	5	6
			뮤지컬 '친정엄마' 14:00, 18:30 대 15만원·13만원·10만원·7만원 리바이트 유나이티드(02-6498-0403)
10	11	12	13
악' 15:00 7-9851)			
17	18	19	20
소 10:00 20-6213)			뮤지컬 캐치! 티니핑 '두근두근 싱어롱 콘서트'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4만4천원/썬하늘이엔티(1688-6675) (재)부산문화회관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II '악어의 양치시간' 11:00 소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4	25	26	27
라 '마술피리' 10:30 이술단(607-3113, 3115)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3, 3115)	부산시립예술단 토코오페라 '마술피리'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예술단(607-3113, 3115) 2024 시민뜨락축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라루체' 12:10 아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바다탐험대 옥토넷 시즌3 '바다 넘어 육지까지' 11:00, 14:00, 16:00 대 전석 6만6천원/윙컴퍼니(1670-9788)
		전시실 참좋은 소나무 전시 4월 2일(화)-4월 7일(일) 전시실 1, 2 제3회 산미술연구회(SARA) 정기전 4월 9일(화)-4월 14일(일) 전시실 1, 2 그림이 마음을 만날 때 4월 16일(화)-4월 21일(일) 전시실 1	제46회 부산수채화협회 정기전 4월 23일(화)-4월 28일(일) 전시실 1, 2 제26회 한국해석회 회원전 4월 30일(화)-5월 5일(일) 전시실 1, 2 • 문의:부산시민회관 630-5200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5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예술단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4월 24일(수)-26(금), 4월 30일(화)-5월 3일(금) 오전 10: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
• 연출-해설/ 이의주
• 지휘/ 백승현(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5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 지휘/ 이기선(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임희준(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연출/ 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각색 및 작-편곡/ 이진실
•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2310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교육공연 영도 할매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떠나는 국악사계
5월 8일(수)-9일(목)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5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만 24개월 이상 관람)
• 지휘/ 백승현(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S석 2만2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합창음악극 엄마, 같이 걸을까
5월 2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천원, S석 2천원(만 6세 이상 관람)
• 지휘/ 천경필 (수석지휘자) • 연출/ 김희연 (연출/대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야구왕, 마린스!
6월 4일(화)-5일(수), 7일(금) 오전 10:30
6일(목),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만 48개월 이상 관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E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T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S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리사이틀

일시 5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좌석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 시대의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아들 사샤, 딸 릴리로 구성된 마이스키 트리오가 5월 부산을 찾는다.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로 꼽히는 미샤 마이스키는 20세기의 거장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로부터 “시적인 감성과 폭풍 같은 격정, 눈부신 기교가 조화를 이루는 연주자”라고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도 18살이 되던 1966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했다. 1974년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첫 데뷔 이후에는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Gregor Piatigorsky)를 사사하면서 마이스키는 이 시대 최고의 두 거장에게 모두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첼리스트가 되었다.

사람의 심장에 가깝게 다가가는 연주,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음악입니다

- 미샤 마이스키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1948년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난 마이스키는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망명하자,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반체제운동에 관여했다는 누명을 쓰고 1970년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됐다. 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18개월간 옥중 생활을 견뎌야 했던 그는 이후 2개월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1972년 풀려난 마이스키는 시민권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 다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라트비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로 귀화한 마이스키는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음악 무대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주요 국제 페스티벌의 단골 게스트인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로린 마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주세페 시노폴리,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다니엘 바렌보임, 샤를 뒤투와, 마리스 얀손스, 파보 예르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업했으며, 마르타 아르헤리치, 예브게니 키신, 이작 펄만, 랑 랑, 기돈 크레머, 바딤 레핀, 막심 벤게로프, 조슈아 벨 등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췄다.

30년 이상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한 그는 빈 필, 베를린 필, 이스라엘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등 세계 굴지의 오케스트라와 35개 이상의 음반을 녹음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피아니스트인 딸 릴리와 함께 특별한 앨범, '아다지에도(Adagietto)'를 발매했는데, 음반의 보너스 트랙에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자닌 얀션, 율리안 라홀린,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들 사샤와의 라이브 녹음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음반에는 마이스키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인 말러 교향곡 제5번의 아다지에도 악장을 마이스키 본인의 연주로 전 파트를 녹음(하프 제외), 멀티 트랙으로 편곡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의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도쿄의 권위있는 레코드 아카데미상과 독일 레코드 상(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

파리 음반 대상(Grand Prix du Disque), 황금 디아파종상(Diapason d'Or of the Year)을 수상하고 그래미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오른 경력이 있다.

감성적인 연주로 사랑받는 '첼로의 음유시인'

'첼로의 음유시인'답게 감성적이고 시적인 연주 스타일로 사랑받는 마이스키는 특히 '첼로의 구약 성서'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연주로 더욱 더 유명하다.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무려 세 번이나 녹음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연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바흐의 서정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한 연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 음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연주'라는 평을 받으며 바흐 모음곡의 명반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친한파 연주자로, 우리에게 첼리스트 장한나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88년 첫 내한공연 이후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으며, 내한공연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가곡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마이스키 트리오의 완벽한 앙상블

예전부터 아들 사샤(바이올린), 딸 릴리(피아노)와 함께 마이스키 트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했던 마이스키는 2009년 내한공연에 딸 릴리와 처음 동행하여 한 무대에 섰다. 릴리와는 2005년 이탈리아에서의 첫 공식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데, 서로를 가장 편안한 파트너로 꼽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들 사샤까지 함께하며 마이스키 트리오 완전체로서의 무대를 음악팬들에게 선사한다. 첫 곡인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작품 22'를 시작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3', 쇼스타코비치 '피아노3중주 마단조, 작품 67',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소품, 작품 2'를 들려준다. 특히 마이스키 트리오가 들려주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3중주 마단조, 작품 67'은 쇼스타코비치가 오랜 친구였던 이반 솔베르킨스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곡한 곡으로, 비장함과 연민, 고통 등이 곡 속에 고스란히 곡 속에 담겨 있다.

일상에서 누리는 감동과 행복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재)부산문화회관이 2024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4월 24일(정기회원 선오픈 4월 23일) 관람권 예매를 시작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계획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예술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현존하는 최고 피아니스트와의 만남

클래식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무대,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6월 2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현존하는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루돌프 부흐빈더는 1951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 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입학하면서 모차르트에 견줄 만한 천재로 화제를 모았다. 빈 국립음대 역사상 최연소 합격자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부흐빈더는 10세의 나이로 빈 무지크 페라인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으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마친 후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실력과 명성을 쌓았다. 1961년 뮌헨 국제 콩쿠르 피아노 트리오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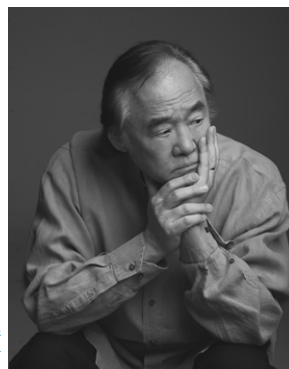


루돌프 부흐빈더 © Marco Borggreve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Fabrice Ungeles

에서 1등상을 수상한데 이어 1965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특별상, 1970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모차르트 해석상을 차지했다. 부흐빈더의 핵심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음악이다. 지난해 내한공연에서 7차례에 걸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부흐빈더는 올해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내한하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지휘 및 연주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무산되면서 많은 음악팬들의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백건우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11월 22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백건우는

풍부한 레퍼토리와 서정적인 피아니즘으로 전 세계 많은 팬을 보유한 피아니스트로,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67년 나움버그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1969년 리벤티리 콩쿠르 결선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2년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 앨범으로 디아파종상을 수상했으며 1993년에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파종상을 포함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00년에 녹음한 바흐-부조니 음반은 '부조니의 재림'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그 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예공로훈장 슈발리에를 수여했다. 같은 해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초청된 한국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화제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예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즐기는 송년무대

12월로 접어들면서는 다채로운 송년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우선 12월 15일에는 천상의 화음으로 사랑받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부산을 찾는다.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 독일의 뮐처 소년 합창단과 더불어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지난 1907년 창단된, 프랑스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1971년 첫 내한 이후 50년 이상 꾸준히 한국을 찾으며 국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부여받은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에 걸맞게 1953년 끌로뉴 국제 평화회의, 1956년 파리 평화회의, 1965년 베를린 성탄절 특별공연 등 프랑스 문화외교 사절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蓬피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2024년을 마무리하며 음악을 통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라 장 © 워너뮤직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세계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이 송년무대를 갖는다. 3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 사라 장은 1990년 만 8세의 나이에 거장 주빈 메타가 이끄는 뉴욕 필과의 협연으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듬해인 1991년 EMI 레이블과 계약하며 세계 최연소 레코딩 기록을 갖게 되었으며, 1994년 13세의 나이로 베를린 필 데뷔무대를 가졌다. 그는 최초로 베를린 필과 3번의 레코딩 작업을 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1995년에는 최연소 나이로 에이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신동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사라 장은 어느덧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대가로 성장했으며, 바이올린계를 넘어 문화계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 2004년 할리우드볼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006년 '뉴스위크'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20인,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청년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으며, 2018에는 Classic FM이 선정한 '최고의 바



리처드 용재 오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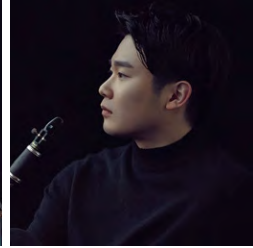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한

이올리니스트 25'에 들어가는 등 여전히 세계적인 명성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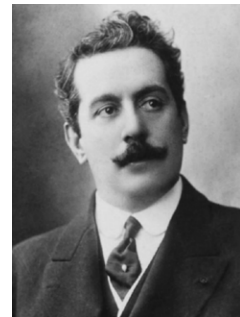
2024년을 마무리짓는 12월 27일, 부산시민회관에서는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젊은 거장들의 실내악 무대 '스타즈 온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2021 그레미상 수상자로 에미 상, 에버리 피쳐 커리어 그랜트 상을 모두 수상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하여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이자 현재 가장 독보적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 양인모, 센다이 콩쿠르 우승자 장유진,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 문태국, 자크 랑슬로 국제 콩쿠르 우승자이자 현 파리오페라 발레 클라리넷 수석 김한 등 그야말로 최고의 연주자들이 수준높은 실내악 무대로 2024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밖에 한국 최초의 년버벌(비언어) 퍼포먼스로 한국의 대

표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난타'는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으로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하는 전막 오페라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하는 전막 오페라 '나비부인'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4 부산오페라시즌' 무대로,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푸치니

클래식, 장르의 경계를 넘다

장르를 넘나드는 색다른 연주무대를 감상하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자. 8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유럽을 대표하는 재즈 현악5중주 '볼로시(Voloski)'가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비올리스트, 그리고 첼리스트와 베이스리스트 등 폴란드 출신의 연



난타



주자로 구성된 '볼로시'는 2010년 '뉴 트래디션 페스티벌 (New Tradition Festival)'로 데뷔한 후 유럽 전역에서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왔다. 클래식은 물론 재즈와 록, 팝, 집시음악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선곡과 연주자들이 펼치는 파워풀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연주로 그동안 우리가 흔히 갖는 현악5중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특히 볼로시는 부산 시민과 첫 만남을 가진 2018년 무대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평을 받았으며, 관객들의 끊임없는 러브콜로 이듬해인 2019년 앵콜공연으로 부산을 찾아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1950년대 웨스트 코스트 재즈(West Coast jazz)를 이끈 트럼펫의 대가 쳇 베이커와 19세기 러시아니즘의 낭만을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 <첼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는 10월 19일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첫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그 인기를 입증한 무대로, 쳇 베이커의 구슬픈 트럼펫 선율과 심금을 울리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랑을 받는 두 음악가의 주옥 같은 곡들과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준높은 연주, 여기에 곡에 대한 친절하고 재밌는 해설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무대에서 만나는 종묘제례악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과 국립현대무용단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8월 중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인 '종묘제례악'을 만날 수 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의식 음악과 춤으로,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하고 당시 왕실 음악기관이었던 장악원의 악공들이 연주했으며,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2011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으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종묘제례악'을 그동안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부산시민들이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종묘제례악'의 쉽고 재미있는 이해를 위해 해설과 함께 종묘제례의 소중한 가치를 관객들에게 직접 전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역상생프로젝트'는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주제의식을 담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하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 등 파트너 극장 4곳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권역별 1인의 안무가를 선정, 이들의 공모작을 국

립현대무용단의 제작시스템을 거쳐 레퍼토리로 선보인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안무가 박재현의 '수선되는 밤'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선되는 밤'은 앞으로 3년간 국립현대무용

단의 레퍼토리로 개발되며, 9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감독의 작품 '정글'이 더블빌로 올려져, 국립현대무용단과 부산의 안무가 박재현 작품이 한 무대에 서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창작뮤지컬 '달사베트'가 부산을 찾는다.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한 작가 백희나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뮤지컬로, 그림책 속 아름다운 이야기가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온다. 공연은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는 10월 22일부터 어린이뮤지컬



달사베트 ©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홍부의 영감과 도깨비



박재현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를 무대에 올린다. 전통설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흥겨운 우리가락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해준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꼬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는 기존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토요일의 ㅋㅋㅋ’라는 유쾌한 부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무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발레와 함께 펼쳐진다. 공연은 12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밖에 독보적인 감성으로 다양한 음악적 행보를 펼쳐온 가수 로이킵과 4인조 밴드 소란이 함께하는 ‘로이킵&소란’은 7월 2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영국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National Theatre)가 선정한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생생한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NT-라이브’는 9월 28일과 11월 30일 두차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상영된다. 특히 ‘NT-라이브’는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과 실제 공연을 방불케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으로 지금도 세계 65개국 이상 국가에서 상영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매진행렬을 이어오고 있으며,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화제작들을 꾸준히 소개해오면서 많은 연극팬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로이킵



소란



©Claude Monet, The spring, 1875, Johannesburg Art Gallery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명화를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4년 첫 기획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 특별전>이 7월 2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19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였던 요하네스버그에 문을 연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영국의 건축가 에드워드 루티언스가 설계한 미술관으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컬렉션을 자랑한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작품은 물론 18~19세기 영국과 유럽 미술 거장의 작품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3만 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의 근현대 명작을 소장한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한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명작은 물론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낭만주의, 라

파엘 전파, 나비파와 야수파, 큐비즘과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 전반과 아프리카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6월~12월)

예매오픈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2:00

*정기회원 선오픈 4월 23일(화) 오후 2:00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I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I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I ARS 1번 외국어 문의 I ARS 2번

티켓수령 I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6-12월
June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사람의 심장에 가깝게 다가간 연주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5. 8.(수) 7:3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첼로 | 미샤 마이스키 • 바이올린 | 사샤 마이스키
- 피아노 | 릴리 마이스키
- ※ 7세 이상 관람



© Andrey Gritic

문화예술 '핀팬'을 위한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5. 10.(금),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 4(화)-9.(일)

화·수·금 10:30am, 목·토 11:00am, 2:00pm,
일 11:00am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만 48개월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종도
-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I

문화 | 대극장 2024.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주영 • 해설 | 심정옥
- 소프라노 | 우수연 • 테너 | 이동명
- 바리톤 | 안세범
- 연주 | KNN방송교향악단
- ※ 7세 이상 관람



현존하는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2024. 6. 29.(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 지휘&협연 | 루돌프 부흐빈더
- 예술감독 | 다니엘 도즈
- 연주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달샤벳>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토끼석 60,000원 늑대석 40,000원

- 원작 | 백희나
- ※ 24개월 이상 관람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월 중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 7세 이상 관람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연출 | 정갑균 • 재연출 | 김숙영
- 지휘 | 이병욱
- 합창·연주 | 2024부산오페라시즌 합창단, 오케스트라
- ※ 7세 이상 관람



젯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10.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초청공연**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 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19.(목)-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공휴일 3:00pm ※12. 23.(월) 공연없음
※ 36개월 이상 관람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민 | 대극장 2024. 5. 11.(토)~12.(일)
11:00am, 3:00pm
VIP 55,000원 R석 44,000원 S석 22,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시민 | 대극장 2024. 6. 15.(토) 5:00pm
VIP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옆집우주'의 최신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시민 | 소극장 2024. 6. 22.(토) 3:00pm
전석 20,000원 ※ 12세 이상 관람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X<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NT Live

시민 | 소극장 2024. 9. 28.(토), 11. 30.(토) 2:00pm
전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스타즈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한**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인문학적 패러다임:공존

4월 13일(토), 5월 3일(금), 6월 29일(토), 8월 31일(토),
9월 28일(토), 11월 30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2·3층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문명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한다. ‘패러다임’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1962년)’에서 ‘과학의 발전은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온 것’이라는 새로운 과학사관을 밝히며 처음 등장하였다. ‘패러다임’은 ‘사례·예제·실례·본보기’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paradeigma)’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뜻한다.

현재 세계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했으며, 더불어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시대를 선언하고 있다. AGI는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의 형태를 지칭하는데, 이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인식 등을 모방하여 어떠한 지적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요즘 같으면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인간의 손에서 탄생한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오직 인간을 바라보는 학문인 ‘인문학’이 지금 시대의 확실한 패러다임이 된다고 하면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속에서 가장 안전한 나침반이 되리라고 본다.

(재)부산문화회관의 명사초청 아카데미 시리즈 ‘인문학 마

스터 클래스’는 대한민국 저명한 강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강연형 콘서트로, 시리즈 첫 해였던 지난해 ‘성찰과 질문’을 주제로 시작하여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인문학적 패러다임:공존’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낚선 혁명이 아닌 공존의 자세로 받아들이면 우리 곁에 늘 있었던 가장 인간다운 패러다임으로 탄생할 것이다.

4월 13일 정치학자 김지윤을 시작으로 생태학자 최재천(5월 3일), 사회복지학자 이지선(6월 29일), 뇌과학자 정재승(8월 31일), 영화평론가 이동진(9월 28일), 미술사학자 양정무(11월 30일)의 강연과 더불어 강연 전 지역 우수 예술인들의 감미로운 실내악 연주까지, 인문 지성과 예술 감성을 드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4월 13일(토) 정치학자 김지윤

2024 국제정세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야말로 뜨거운 정치의 해인 것이다. 이미 1월 치러진 대만 선거, 4월 한국의 총선뿐 아니라 유럽 의회 선거, 영국 총선, 그리고 미



국의 대선과 의회 선거까지, 많은 국가에서 정권의 교체 혹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결과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짚어본다.

강연을 맡은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인 김지윤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BC 대표 토론프로그램 '100분 토론'(2018년 7월~2020년 1월) 진행자로 이름을 알린 그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 시사 등 다소 딱딱한 주제를 친숙한 언어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호평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여 구독자들과 만나오고 있다.

• 연주/ 오보에 최진

5월 3일(금) 생태학자 최재천

다양성과 공존:

호모사피엔스를 넘어 호모심비우스로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거나 야생동물들의 서식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점점 더 빈번하게 경계를 넘을 것이다.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으로, 이는 다양성과 공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자연을 따라 인류 또한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강연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의 호칭은 여럿이다.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사회생물학자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그의 영역은 넓다. 개미를 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개미박사'라고도 불리우는데 2020년 시작한, 자연과 인간의 생태계를 논하는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이 돌풍을 일으키면서부터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엔트맨'이라 불리기도 한다. 최재천 교수는 식량위기와 생태위기 같은 압

축한 세대에 봉착한 인류가 지속가능한 진화와 더불어 생존을 하려면 서로 평화롭게 공생해야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의 명칭을 공생하는 사람이란 뜻의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is)'라 제창하고 앞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자만을 털어내고 더불어 사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연주/ 테너 이태흠, 피아노 오채영

6월 29일(토) 사회복지학자 이지선

상처투성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법

우리 삶에 때로 상처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삶을 즐길 수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지난해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돌아온 이지선 교수는 그 누구보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지



금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떻게 상처투성이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들려준다.

2000년 7월, 이지선 교수는 당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자신의 신체 절반 이상(55%)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고 40일이 넘는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과정에서 도움 받은 게 많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로 마음 먹는다. 당초 유아교육학과 학생이었던 이지선 교수는 '내가 받았던 도움만큼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학과로 전공을 바꿔 유학길에 올라 미국 보스턴대·컬럼비아대에서 재활상담학·사회복지학 석사,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고 지난 2017년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첫발을 내딛었다. 그의 삶은 저서 '지선이 사랑해'와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두 권 모두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 연주/ 바이올린 조혜운, 피아노 김성주

8월 31일(토) 뇌과학자 정재승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201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다. 이는 지난 4천년간 바둑을 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오히려 한 수 배우고 있으며, 새로운 전문가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여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친숙

하게 다가갔던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가치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다양성이 창의성의 본질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를 물리학으로 전공한 물리학자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선택)을 물리학 이론을 통해 연구하는 정재승 교수는 학생들의 필독서인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저자로, 특히 과학을 쉽게 풀어내며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학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 연주/ 비올라 황여진, 피아노 박민선

9월 28일(토) 영화평론가 이동진

영화 연기란 무엇인가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배우의 연기이다. 그런데 영화 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영화 연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관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진행하는 이번 강연에서는 영화 연기란 무엇인지를 해설함으로써 더 깊게 영화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평론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국내 영화평론가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인기로 두터운 팬덤을 가진 이동진은 한국 영화 평론의 대중적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로 평

가받는다. 대학 시절, 지인의 소개로 한 잡지에 영화 한줄평을 쓰는 일을 하면서 영화 평론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13년간 영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다 퇴사 후 본업인 영화 해설 GV를 중심으로 TV,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연주/ 첼로 앙상블 디 첼리스텐 앙상블(리더/정준수)



11월 30일(토) 미술사학자 양정무

르네상스의 완성과 종교개혁 (난처한 미술이야기)

르네상스 시대 탄생한 작품들은 서양미술사의 새로운 고전으로 등극했으며 향후 500년 동안 서양미술사를 지배하는 강력한 전형이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16세기 로마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꽃피웠는지 살펴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예술연구소 소장과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한국미술경영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하는 등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술사를 풀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 인기 강사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KBS1 ‘예절의 전당’ 등 방송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연주/ 해금 김준희, 피아노 김란



우크라이나 출신의 명지휘자 키릴 카라비츠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무대



지휘 키릴 카라비츠



부산시립교향악단

우크라이나 출신의 명지휘자 키릴 카라비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09년부터 영국 본머스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키릴 카라비츠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첫 영국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본머스 심포니와 함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 키릴 카라비츠는 그동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프랑스 내셔널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로테르담 필하모닉,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BBC 심포니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으며, 2022년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Chamber Orchestra of Europe)와 함께 내한하여 음악팬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2016년부터 4년간 독일 바이마르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을 역임하기도 한 카라비츠는 바그너 제네바 페스티벌에서 바그너 기념의 해를 맞아 열린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비롯해 도이치 오페라,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의 ‘보리스 고두노프’,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베니스에서의 죽음’,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오페라 ‘라보엠’ ‘에프게니 오네긴’, 함부르크 슈타츠 오페라 ‘나비부인’, 잉글리스 내셔널 오페라의 ‘돈 조반니’

등 오페라 지휘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라비츠는 2013년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뮤직어워드에 ‘올해의 지휘자’로 선정됐다.

4월 19일 제610회 정기연주회



4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0회 정기연주회에서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고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한다. 첫 곡은 교향시의 창시자인 작곡가 리스트의 교향시 제6번 ‘마제파’로, 여기서 곡목인 ‘마제파’는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영웅 이반 마제파를 가리킨다. 1854년 초연된 ‘마제파’는 리스트 교향시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1851년 발표한 초절기교 연습곡 제4번 ‘마제파’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고 내용도 대폭 확장해서 교향시로 만든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쇼스타코비치 ‘첼로협주곡 제2번’으로,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한다. 원래는 새로운 교향곡을 작곡할 예정이었으나 작곡과정을 거치면서 첼로협주곡으로 바뀌게 된 곡으로, 쇼스타코비치가 스스로 ‘독주 첼로 파트가 있는 교향곡’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협연자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우승,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우승,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4위 등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았다. 2017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에 이어 2019년까지는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 2022년에는 롯데콘서트홀 인하우스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문태국은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 G.rium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제1회 야노스 슈타커 상과 제5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하여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문태국은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 남가주 대학교를 거쳐 현재 줄리어드 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학 중이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페트르 슈카'로, 러시아 문화와 민속 요소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표현한, 스트라빈스키의 천재성과 음악적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첼로 문태국 © SangWook Lee

스트라빈스키는 1921년 세 곡을 골라서 피아노 곡으로 편곡했고, 1947년에는 오케스트라 편성을 축소하고 피아노 파트는 확장하는 관현악 개정판을 출판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 개정판을 연주한다.

4월 18일 미완성음악회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에 앞서 전날인 4월 18일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를 개최한다. '미완성음악회'는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610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실제 연주회와는 다른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



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리스트 교향시 제6번 '마제파'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지휘자와 단원들이 통역없이 영어로 소통하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과없이 펼쳐진다.

4월 21일 2024 교향악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명실상부 세계 유일, 세계 최대의 관현악 대제전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들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협연자들이 함께 하며 우리 음악계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전국 23개 교향악단이 참가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교향악축제에서도 키릴 카라비츠의 지휘,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정기연주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곡으로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지휘/키릴 카라비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4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지휘/키릴 카라비츠 • 협연/문태국(첼로)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 지휘/키릴 카라비츠 • 협연/문태국(첼로)

재미, 볼거리 풍성한 부산시립예술단 두 번째 토크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4월 24일(수)-26일(금), 4월 30일(화)-5월 3일(금) 오전 10: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4일(목)-5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7월 공연 전석 2만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제작한 토크오페라 ‘마술피리’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특히 이번 ‘마술피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 과정(4월 24일~5월 3일)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메인 공연(7월 4일~5일) 등 2개 버전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지휘 백승현



연출·해설 이의주

출을 역임한 이의주는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연출가로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아이다’ 등을 연출했다. 이탈리아 유학 후 국내 무대에서 첫 연출작품으로 ‘마술피리’를 선택할 만큼 ‘마술피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큰 화제를 모은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에 이은 부산시립예술단의 두 번째 토크오페라로,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줄거리, 극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으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세비야의 이발사’로 호응을 맞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지휘자 백승현과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다시한번 손을 잡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있는 지역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지휘자 백승현은 독일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바덴바덴 필하모니,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국내에서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DIO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하며 관객들을 만나왔다.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

오디션을 통한 청년 성악가들의 무대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부산 출신, 또는 부산에 활동 중인 청년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배역 14명을 선발했다. 당초에는 6~10명의 성악가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지역 청년 성악가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참여 열기가 어느때 보다 뜨거워 공연 성격과 배역에 따라 더블캐스팅을 확정, 보다 많은 성악가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밤의 여왕’ 역에는 소프라노 박나래, 김승현(4월), 강주희, 이예은(7월)이 선발됐다.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열연한 소프라노 박나래는 올해 ‘마술피리’에도 도전, ‘밤의 여왕’으로 부산지역 청소년들과 다시 만난다. 소프라노 김승현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오페라 석사 및 오페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만점 졸업하고 다수의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동해 왔다. 7월, ‘밤의 여왕’으로 출연하는 소프라노 강주희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오페라과 석사, 최고

파미나



김은영

밤의 여왕



박나래

파파게나



이유빈



박예은



김소현



박예은



박소연



강주희



송혜진



이수정



이예은

타미노



김동낙

파파게노



시영민

자라스트로



김준태



손상희



유용준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International Vocal Competition Of Gabriela Beňáková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 수상한 바 있다. 소프라노 이예은은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잔니스키키’ ‘피가로의 결혼’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파미나’ 역으로 4월 무대를 책임질 소프라노 김은영은 동의대학교를, 박예은은 창원대학교를 졸업한 신예로, 두 사람 다 ‘파미나’ 역은 첫 도전이다. 7월에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국영방송 MDR객원, 바이마르 국립극장 단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소프라노 박소연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에스토니아 탈린국제콩쿠르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이수정이 출연한다.

‘타미노’는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테너 김준태가 최종 확정되어 4월과 7월 무대에 오른다. ‘파파게노’는 바리톤 유용준이 ‘세비야의 이발사’에 이어 토르코오페라 ‘마술피리’에 응시, 생애 첫 파파게노에 도전한다.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공연 일정과 배역의 특성을 고려해 테너 김동낙과 바리톤 시영민을 특별 캐스팅, 테너 김동낙이 7월의 ‘타미노’, 바리톤 시영민이 7월의 ‘파파게노’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자라스트로는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G.Nicolini 국립음악원 등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이탈리아 La voce 매니지먼트 소속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스 손상혁이 출연한다.

30세 이하로 한정해서 모집한 파파게나는 소프라노 이유빈과 박예은, 송혜진이 확정되었다. 3인의 평균연령은 26세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이유빈은 오페라 ‘돈 파스칼레’,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춘향전’ 등에 단역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박예은은 오페라 ‘버섯피자’에 출연한 바 있다. 송혜진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2022년 오페라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합창으로 참여한 바 있다.

최고 제작진이 선사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

이밖에 부산 출신의 무대디자이너 길고은이 새롭게 작업에 참여, 신비롭고 화려한 무대 영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상디자이너 한승수, 조명디자이너 김민재, 분장디자이너 구유진이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4 시민뜨락축제

4월 26일(금)-5월 17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10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4 시민뜨락축제'가 4월 26일부터 한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봄과 가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평일 낮,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부산버스킹페스타' 수상팀과 부산시립합창단을 초청,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부산 전역에서 열린 바 있다. 올해는 다시 '시민뜨락축제'의 주 공연장이었던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공연예술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첫날인 4월 26일에는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팝페라 라루체가 축제의 첫 장을 연다. 지난 1984년 창단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전통음악 계승 및 발전, 창작음악 개발을 통한 대중화 및 현대화로 국내외에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소프라노 이찬미, 테너 최솔로 구성된 팝페라 라루체는 동갑내기 부부의 완벽한 호흡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오고 있다. 5월 3일에는 위나 밴드와 조아콰이어가 무대에 오른다. 재즈 보컬리스트 위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나 밴드는 그동안 재즈를 기반으로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들을 위나 밴드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로 편곡 및 재해석하여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합창을 사랑하는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조아콰이어는 지난 2016년 창단 후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다.

5월 10일에는 재즈 특유의 감미로운 선율과 다양하고 친숙한 편곡을 통해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 씨니몬 재즈밴드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클래식 매력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문 현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에끌레토가 시민뜨락축제를 찾는다. 마지막 무대인 5월 17일에는 탱고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친친탱고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가 무대에 오른다. 작곡가 겸 반도네오니스트인 김종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친탱고는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인 피아졸라의 명곡과 더불어 친친탱고만의 자작곡을 통해 친친탱고만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파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는 경쾌하고 화려한 금관선율로 축제의 장을 마무리한다.



2024 제42회 부산연극제

4월 13일(토)-28일(일)

영화의전당,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공원 외 부산지역 곳곳
통합관람권 13만원, 축하공연·섹션 B·U 3만원, 섹션 S·A·N 무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의 축제 '부산연극제'가 4월 13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1983년 첫 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42주년을 맞는 부산연극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연극제의 예선을 겸한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운영해오다 지난해부터 연극제의 예선무대가 아닌 시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명실상부 부산의 대표 공연예술축제

지난해는 부산 대표 극단의 공연들이 펼쳐지는 Base, 부산의 신진 극단이 참여하는 Unique를 비롯해 전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백 경연대회 Social, 부산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All,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는 Noise 등 총 부산(BUSAN)의 영문명에서 이름을 가져온 다섯 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부터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모이고 함께 만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자 '붐!(BOOM!)', '언리미티드(UNLIMITED)', '씬(SCENE)', '올(ALL)', '노이즈(VOICE)'로 섹션명을 개편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치열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작

우선 '붐! BOOM!'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작품 섹션으로,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준 높은 중극장 규모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치열한 공모를 통해 엄선된 극단 우릿의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과 극단 누리예의 '어둠상자', 그리고 올해 용인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는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극단 배·관·공)의 '두 번째 시간'이 부산 연극의 봄

을 도모한다.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에 앞서 부산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두 번째 시간'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문사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어두운 면과 평범한 삶의 간극을 탐구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간'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작품의 의의가 크고 시대적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창단한 극단 배·관·공은 그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본



질을 탐구하고 배우 중심의 무대예술을 추구해왔다.

극단 우릿의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은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고립된 섬 안차도(眼遮島: 눈이 가리어진 섬)를 배경으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살아온 아이들이 세상을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8년 창단된 극단 우릿은 영상대 연극뮤지컬학과 출신을 주축으로 창단된 극단으로, 젊은 극단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역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극단명인 '우릿'은 '깊고 진한 감동을 느껴 떨리는 상태에 있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우릿하다'에서 가져왔다.

극단 누리에의 '어둠상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희곡작가 이강백이 2012년 덕수궁에서 열린 대한제국 황실 초상전에서 고종 황제의 채색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섞어 만든 작품이다. 고종 황제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상상력의 꼬리를 물고 근현대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고종의 마지막 어진(御眞)을 찍은 황실 사진가의 집안 이야기로 그려지면서 구한말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인연과 숙명을 작가 이강백의 상상력과 강성우 연출가의 섬세한 무대언어로 탄생했다. 지난 1997년 부산예술대학교 연극과 출신을 주축으로 창단된 극단 누리에는 그동안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한 창작극 중심의 작품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극장 경연

'언리미티드 UNLIMITED'는 부산 지역 소재의 공연예술단체뿐 아니라 연극의 형식을 지닌 작품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극장 경연 섹션으로, 연극제 기간동안 공간소극장과 열린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초연작 두 편을 비롯해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상금 1천만 원)과 연기상, 연출상, 무대예술상, 희곡상 등 5개 부문에 시상이 주어진다.

극단 아이콘택의 '룸메이트 스पा이크'는 2030세대를 살고 있는 취준생에 대한 이야기로, 취업준비를 위해 상경하여 한 집에 모여사는 세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마치 배구 경기처럼 펼쳐진다. 극단 데일리드라마의 '오늘의 지구'는 먼 미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구를 배경으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극단 따뜻한 사람의 '컨테이너'는 밀입국자들을 실어 나르는 중간 브로커인 '도우미'를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허상을 그리고 있다. 극단 빅픽처스테이지의 '코마'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희대의 싸이코패스 '엄여인 실화'를 통해 배금주의가 만연한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알린다.

UNLIMITED



극단 아이콘택 '룸메이트 스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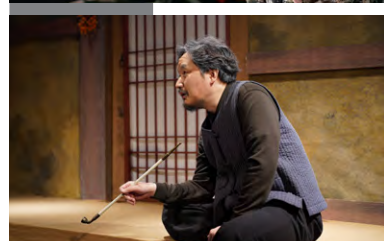
극단 데일리드라마 '오늘의 지구'



극단 따뜻한 사람 '컨테이너'



극단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예술집단 해피 그랑을 건너지 마오'



부산연극제작소 동북 '날개, 돈다'



극예술실험집단 초 '30,000원 내고 우리 연극 보러 올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 먹겠다'

예술집단 백미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의 첫 소절인 '공무도하(公無渡河)'가 모티브가 된 작품으로, 임이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날개, 돌다'는 각자 다른 날개를 지니고 태어나지만 사회에 순응하는 일개 개인이 되기 위해 날개를 제거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긴 제목이 인상적인 극예술실험집단 초의 '30,000원 내고 우리 연극 보러 올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 먹겠다'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연극을 통해 '우리는 왜 연극을 할까'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다.

온라인 경연대회부터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씬(SCENE)' 섹션은 전국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경연 대회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극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명장면 다시보기', '장면의 재구성' 등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올(ALL)' 섹션은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며 직접 만드는 부산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노이즈(VOICE)'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 난장을 이룰 세미나, 네트워킹 파티 등 부대행사 섹션으로, 올해는 부산지역 연극 전공 대학생들, 관객 동아리들과 함께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찾아간다.

BOOM!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두 번째 시간'

개막식

4월 13일(토) 오후 2: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폐막식, 시상식

4월 28일(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극단 우릿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 **붐!(BOOM!)**

4월 13일(토)-14일(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12**

• 작, 연출/강인정

극단 아이컨택 룸메이트 스파이크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13일(토)-14일(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15**

• 연출/백규진

극단 데일리드라마 오늘의 지구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15일(위)-16일(화) 오후 8:00 열린아트홀 **12**

• 작, 연출/이영섭

극단 따뜻한 사람 컨테이너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17일(수)-18일(목) 오후 8:00 공간소극장 **15**

• 작, 연출/허석민

극단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19일(금) 오후 8:00, 20일(토) 오후 6:00 열린아트홀 **15**

• 작, 연출/김정환

극단 누리에 어둠상자 **붐!(BOOM!)**

4월 20일(토)-21일(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8**

• 작/이강백 • 연출/강성우

예술집단 백미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22일(월)-23일(화) 오후 8:00 공간소극장 **ALL**

• 작, 연출/이상미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날개, 돌다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24일(수)-25일(목) 오후 8:00 열린아트홀 **ALL**

• 작/이래은 • 연출/최용혁

극예술실험집단 초 30,000원 내고 우리 연극

보러 올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사 먹겠다 **연리미티드(UNLIMITED)**

4월 25일(금) 오후 8:00, 26일(토) 오후 6:00 공간소극장 **12**

• 작, 연출, 무대/김동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두 번째 시간 **붐!(BOOM!)**

4월 28일(일) 오후 2: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17**

• 작/이보람 • 연출/주혜자

어른을 위한, 동화연극

부산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강태욱 PERFORMANCE PROCESSING TODAY 대표, 극작가, 연출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것이 자라 장성하면 죽음에 이르니라. _성경

전부를 취하면, 전부를 잃는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_팔만대장경

가장 큰 욕망에서 가장 큰 증오가 일어난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_소크라테스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_아리스토텔레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_몽테뉴

이 문구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유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 예술가, 문학자, 경영자, 사회운동가를 비롯해, 종교사상, 정치사상, 법사상, 속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경계의 말은 ‘자립형 안드로이드’가 개발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형식과 언어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순자’의 말처럼 인간은 본디 근원적으로 혼하지 않은 것을 경배하거나 혐오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려 하고,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더 가지려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성악설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부산시립극단의 일흔 여섯 번째 정기공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각색, 연출/정순지)>는 이런 이야기

를 하고 있다. ‘레프 톨스토이’의 동명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1886년 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 다른 이야기들>에 수록)을 원작으로, 부산시립극단의 ‘정순지’ 무대감독이 직접 극화하고, 각색 연출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이 창단된 이래, 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을 서포트해 온 그가 어느덧, 정년퇴임을 맞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에서 특별히 기획된 공연이라,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내용은 이렇다. 주인공 ‘바흠’은 김소하게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나, 주변의 영향으로 자신의 땅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무리를 해가며 고심 끝에 자신의 처형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드디어 땅을 소유한 소작농이 되지만, 이

로 인해 주민, 농노시설 친구들과 불화를 겪게 되어 새로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에, 그는 더 큰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넓고 비옥한 땅을 거저로 살 수 있다는 유목민의 소문을 듣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땅을 구매하러 그들을 찾아 떠난다. 바시키르인 유목민을 만난, 바흠은 그들이 땅을 매매하는 방식대로 하루 동안 걸은 구간만큼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땅을 사기 위해, 걷기 시작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욕심이 생겨나,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가게 된다. 위기의 바흠은 젓 먹던 힘까지 짜내, 죽을 각오로 원점을 향해, 달려서 극적으로 시작점에 도착해, 땅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바흠은 그대로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하인이 땅을 파서 묻어주는데, 그가 차지한 땅은 겨우 세로 50센티, 가로 2미터라는 말과 함께, 끝이 난다.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주제는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의 가사를 들으면,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너무도 선명한 내용으로, 원작 소설이 가진 플롯을 가감 없이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만큼, 톨스토이 삶의 후반부에 그가 가졌던 철학에 기반한 이야기의 주제를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톨스토이의 우화적인 묘사를 연출가가 자신의 보편적 삶의 철학인 불교 가르침의 형언으로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려는 흔적이 극화한 대사 곳곳에 깔려 있는데, 특히,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바흠’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와 어린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그대로 쉽게 변안해 놓은 듯, 극은 러시아 어느 시골의 넓은 평야 지대에서 가축을 키우며, 농업으로 살아가는 농노들의 삶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3단으로 꺾인 경사로의 커다란 무대 구조물(부분 가변형)과 그래픽 영상으로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여러 공간들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공간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간단한 대, 소도구의 변화만을 사용해, 다양한 공간 배경을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공간 배경이나, 장면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무대를 구사하고 있다. 장면 표현 역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만화적인 캐릭터 연기가 지속적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호감도를 배가시켜 주었는데, 특히, 소와 함께, 등장한 참새들의 울동과 노래로 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마치 어른을 위한 한편의 동화극, “어른이극”을 보는 듯했고, 짧은 시간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과 웃음을 선사해 준 선배 배우들의 열연은 정순지 무대감독에 대한 그들의 애정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로 다가왔다.

본래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은 <전쟁과 평화>, <안네 카레니나>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 후반기에 삶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먹은 후, 쓴 대표작 중 하나인데, 그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마치 우화 한편을 읽는 듯 전개하고 있다. 전래동화나 우화만큼이나 매우 간단한 플롯을 가진 내용의 단편 소설이지만,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한 좋은 작품이라는 것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다. 톨스토이는 백작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귀족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농노다!”라고 말할 정도로 농노의 삶을 동경해, 당시 농노의 삶과 사상의 율바름을 작품을 통해 아주 디테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역시, 그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주인공 ‘바흠’을 단순히 우화 속 인물에 머물지 않고, 그의 내면적 갈등을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몇 번씩이나 겪을 수 있을 만한 소시민적 고뇌를 훌륭히 공감시키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의 연극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 한가> 역시, 톨스토이의 이런 문학성을 무대에 옮기고자, 몇 가지 연출적 장치를 부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인공 ‘바흠’의 분신을 무대에 등장시킨 점이 흥미롭다. 먼저, 공연이 시작되면, 얼굴에 흰색 가면을 쓴, ‘바흠’의 분신이 세트의 가장 높은 곳을 계속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고 있는, 달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서민의 모습을 중첩 시켜 보는 듯하다. 이런 장면 처리는 공연 후반 ‘바흠’이 땅을 얻기 위해, 죽을 각오로 뛰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흠’의 뒤로 6명의 분신이 나타나, 여기저기 사방으로 계속 달리는 모습은 숨 쉴 틈 없이 일상의 쳇바퀴 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이 분신은 극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또 다른 효과를 보여 준다. 죽을 각오를 다해 달리고 달려, 출발 지점에 도착하지만 죽음을 맞은 ‘바흠’의 주검을 그의 분신이 ‘분’하여, 무대 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하인이 등장해 바흠의 분신이 누운 두 평 남짓한 자리를 자로 측량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흠’ 자신이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 죽음을 맞이 해서야, 자신을 멈춰 세울 수 있음을 스스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묵도하게 하는 장면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어느 한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골라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본다. 달콤함과 공포를 빌미로 한 자극적인 유혹들, 비교와 경쟁을 획책하는 사회 구조, 날로 치솟아 가기만 하는 양극화 현상... 또, 나의 일상을 돌아본다. 현대사회의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잠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업데이트가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주의사항이 필요한가?’, 과도한 업데이트, 적은 잠, 과잉된 정보의 홍수로 뒤덮인 디지털 정글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위로가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말한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누구나 알고 늘 말하고 있는 ‘도리’이자, ‘진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새기지 못하기에, 톨스토이 역시,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어야 할 ‘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인생관’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처럼, 더욱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낡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 오래된 삶의 논제를 이 “어른”이극” 한편과 함께해 본다.



부산문화회관

뮤지컬 **드라큘라**

일 시 | 4월 2일(화)-7일(일) 화·목·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2:30, 7:30,
주말 오후 2:00, 7: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죽음을 초월한 세기의 로맨스 뮤지컬 '드라큘라'.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1897년에 발표한 흡혈귀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드라큘라'는 400년동안 오직 한 여인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프랭크 와일드혼의 영혼을 울리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넘버가 캐릭터의 매력과 서사를 완성시키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4중 회전무대와 플라잉 기술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연출, 19세기 유럽을 옮겨놓은 듯한 고딕풍 디자인에 몽환적인 느낌의 특수효과까지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부산국악작곡가회 제23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여행**

일 시 |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부산국악작곡가회 010-2448-0823



지난 2001년 3월 결성된 후 그동안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창작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Desire to fly(박선영 곡), 사물놀이 협주곡 'ISLAND'(백규진 곡), 아바레이수나(이정호 곡), 바벨(이은경 곡), 화이부동(조익래 곡), 백제인의 미소(황의종 곡)

- 해설/김한 • 지휘/계성원
- 연주/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 작곡/황의종(회장), 조익래, 이정호, 이은경, 백규진, 박선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일 시 | 4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4만원, S석 2만원(16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중년의 인생을 유쾌하고 솔직하게 풀어낸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가족간의 소통 부재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외롭게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찜질방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15년 초연 때부터 참여한 개그맨 이흥렬을 비롯하여 드라마 '막내먹은 영애씨'의 엄마 역으로 생활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배우 김정하,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이윤미 등 우리에겐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2024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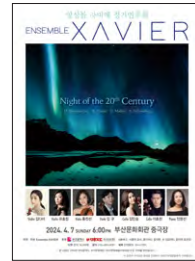
일 시 |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만 15세 이상 관람)
문 의 | ㈜하늘이멘티 1688-6675



수백만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과 삶의 통찰을 선사하는 최고의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의 토크콘서트 시즌4. 재치있는 유머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김창옥은 누적 강연 8,000회, 누적 관객 수 350만명을 달성한 소통 치유전문가로, 강연을 비롯하여 각종 방송, 저술 활동과 함께 배우, 유튜버, 작가로도 활동하며 나이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화의 중요성과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힐링을 선사한다. 특히 김창옥은 tvN STORY '김창옥쇼 리부트', 채널A '지구인 더 하우스', tvN '어쩌다 어른', '김창옥쇼', MBC '라디오스타'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Night of the 20th Century**

일 시 | 4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양상블 자비에 010-4006-0059



2017년 창단 후 해마다 독창적인 주제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음악적 방향성을 관객과 공유해온 양상블 자비에의 무대. 클래식 음악으로 쌓아올려진 전통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도전과 확장'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블 자비에에는 특히 매년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여 어린이들의 성장과 자립 지원은 물론 음악을 전공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예술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프타코비치, 클라크, 말러, 쇤베르크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김다미, 유효정 • 비올라/홍진선, 김규
- 첼로/김민승, 이호찬 • 피아노/진영선

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일 시 | 4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8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깊은 여운이 있는 노래들로 마음을 움직이는 작곡가 김효근의 작품들로 꾸며지는 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자 최퇴일로에 놓인 한국 가곡 장르를 대중 친화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하여 '아트팝'이라는 장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김효근이 직접 해설과 진행을 맡은 이번 무대는 최영선이 지휘하는 아르떼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부 사랑의 노래, 2부 그리움의 노래, 3부 꿈과 희망의 노래로 꾸며지며,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함께한다.

- 진행, 해설/김효근 • 지휘/최영선
- 소프라노/박해진, 김소율, 권소라
- 테너/이태훈, 석정엽 • 바리톤/강경원

2024 부산음악대축제

일 시 | 4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축제 '2024 부산음악대축제'.

올해 무대에서는 지역음악계를 이끌고갈 차세대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신인음악회에 이어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팀이 출연하는 '실내악의 밤'으로 꾸며진다.

25일(목) 신인음악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진 연주자들의 열정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쇼팽/스케르초 제3번 올림파단조 작품 39
 멘델스존/피아노소나타 사단조 작품 105
 바흐/플루트협주곡 라단조 Wq.22
 마스네/오페라 '마농' 중 '내가 거리를 걸을 때'

헨델/트롬본협주곡 바단조 등

- 예술감독/김소형 • 해설/김윤선
- 피아노/현지운, 이세라, 박대희, 박현
- 바이올린/최예은
- 플루트/이승민, 이예진, 조예림, 조은혜
- 트롬본/최원관 • 성악/송지민, 김성균

26일(금) 실내악의 밤

다양한 장르의 앙상블 무대로 꾸며지는 실내악의 밤. 새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실내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트리오 제1번 라단조 작품 49
 브람스/헝가리무곡 제1번 사단조
 슈미츠/Mini Tango
 이정호/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위한 중주곡 '꽃길' 등

출연

리치트리오, 부산플루트앙상블, 프로인트엠앙상블, 골든앙상블, 호산가야금앙상블, JM앙상블, 울(UL)앙상블, 피아첸바, 무지카비바앙상블, 퓨전앙상블 하모니

- 해설/김윤선

ONEPIECES IN CONCERT WE ARE!

일 시 |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9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수많은 매니아층을 양산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음악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KNN방송교향악단 원피스 인 콘서트 'WE ARE!'.

오다 에이치로 원작의 '원피스'는 해적왕을 꿈

꾸는 소년 루피가 밀짚모자 해적단 동료들과 함께 해적왕이 남긴 최고의 보물 '원피스를 찾아 나서는 내용으로, 1997년 7월 연재를 시작한 후 전 세계에서 신드롬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판매부수 3억2천만부로 '단일작가에 의해 가장 많이 발행된 만화 시리즈'로 기네스 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감독 서희태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원작의 스릴넘치는 모험과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6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온도

일 시 |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지난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부산의 정체성을 표방하며 한국에서 손꼽히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제는 창단멤버와 2세대, 3세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오르면서 음악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부산의 실연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대편성의 곡들로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Classic 3B 'BSO×Bruckner×Bruch'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산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고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이 최다 우승자로 선정된 '콩쿠르 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브



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과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 '로만틱'을 들려준다.

지휘자 오충근은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유럽과 일본에서 베를린심포니와 도쿄 필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연자 송지원은 2014 엘리스 앤 엘레노어 쇤펠드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및 최고연주상을 비롯해 2014 중국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2016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2017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및 박성용영재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브루크너/교향곡 제4번 내림마장조 작품 104 '로만틱'

부산시립합창단 제19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일 시 | 5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피노키오'를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중인 작곡가 이진실이 각색과 작, 편곡을 맡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창뮤지컬로 탄생했다.

- 각색 및 음악 작·편곡/이진실
- 지휘/이기선(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 연출/김지용(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연주/부산시립합창단, 2310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친정엄마**

일 시 | 4월 6일 토요일 오후 2:00, 6:30,
7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리바이트 유나이티드 02-6498-0403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을 위한 단 하나의 공연, 뮤지컬 '친정엄마'.

2004년 원작소설 출간 후 영화와 연극으로 제작되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와 딸들을 울리고 웃겼던 작품으로,

엄마라서 알 수 있고 딸이어서 공감되는 최고의 가족 힐링 뮤지컬이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 배울 것 못 배우고 자라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자란 딸은 제 잘난 생각에 엄마를 은근히 구박하고 무시한다. 그런 엄마와 딸이 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는 딸을 결혼 시키게 되고, 결혼을 한 딸은 비로소 친정엄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게 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민배우 김수미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엄마로 출연, 부산 관객과 만난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 II
악어의 양치시간

일 시 |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10인 이상 단체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공연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두 번째 시리즈 '악어의 양치시간'.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처음 클래식을 접하는 어린이들이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체험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공연이 끝난 후에는 로비에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체험 시간을 가지므로써 어린이들의 클래식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멋진 이빨을 자랑하는 악어 투스와 함께 음자리표에 따라 치솔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며, 금관5중주와 함께 신나는 음악여행을 떠난다.

지브리&히사이시조 OST 콘서트
The Orchestra

일 시 | 4월 14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두남재엔터테인먼트(주) 02-6292-9368, 9370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와 '일본의 존 윌리엄스'라 불리는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이자 일본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자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지브리&히사이시조 OST 콘서트'.

지휘자 박해원이 지휘하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OST에서부터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악 OST,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난해 10년만에 선보인 장편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OST까지 감동적인 선율이 가득한 시간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바다 탐험대 옥도넛 시즌3
바다넘어 육지까지

일 시 |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
문 의 | 쿨컴퍼니 1670-9788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TV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바다 탐험대 옥도넛' 시즌 세 번째 무대. '바다 탐험대 옥도넛' 시리즈는 개성있고 귀여운 동물 탐험대원들이 해저 기지인 옥도포드에서 생활하며 각종 바다 생물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거나 도와주는 내용으로, 해양생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실제 존재하는 다양하고 신기한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묘사, 재미와 함께 교육적인 효과도 놓치지 않고 있다. 탐험대 이름인 '옥도넛'은 여덟을 뜻하는 접두사인 'octo-'와 선원을 뜻하는 접미사 '-nauts'로 이루어진 말이다.

뮤지컬 **캐치! 티니핑**
두근두근 싱어롱 콘서트

일 시 | 4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24개월이상 관람)
문 의 | ㈜하늘이엔티 1688-6675



유아들에게 인기많은 3D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캐치! 티니핑-두근두근 싱어롱 콘서트'.

첫 번째 시즌의 티니핑부터 반짝반짝, 알쏭달쏭, 새콤달콤 시리즈의 티니핑 친구들이 무대로 총 출동하여 각 시즌을 대표하는 인기 티니핑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로, 애니메이션 시즌별 주제곡과 인기 티니핑송, 신나는 동요까지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귀여운 사고뭉치 티니핑이 벌이는 소동과 로미와 친구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마법을 통해 어린이 관객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정자경 가야금병창 **여정(旅程)**

일 시 |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정자경 010-9449-3492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자 현재 운사당 대표로 있는 정자경의 가야금병창 '여정'.

정자경은 전남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국립남도국악원 상임단원 및 기획단원,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와도 친숙한 민요와 판소리, 국악가요를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준다.

- 기획, 가야금병창/정자경
- 가야금병창/박혜선 • 고수/윤승환
- 대금/손윤하 • 해금/한수지
- 음악구성 및 신디사이저/김영준

4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0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3월 당신을 위한 우리의 노래

체스싱어즈 리더인 바리톤 김기환과 멤버인 테너 김성, 이광진, 성민기가 들려주는 '당신을 위한 우리의 노래'.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

민요와 팝송 및 가요, 뮤지컬 넘버로 4월의 봄밤을 아름답게 꾸며준다.

프로그램

세계민요/그라나다, 키스해주세요, 날다
 팝송/메기의 추억, Can't help falling love,
 Can't take my eyes off you
 뮤지컬 넘버/지금 이순간(지킬 앤 하이드), 내일
 로 가는 계단(더 라스트 키스) 등

- 피아노/정은경
- 기타/김민국 • 황준혁/드럼

MZ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봄의 소리 콘서트

일 시 | 4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SJ엔터테인먼트 010-9582-3899



마에스트라 배수진과 함께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MZ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지역의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으로, 우리

- 귀에 친숙한 곡들로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 지휘/배수진
 - 연주/MZ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우정출연/테너 윤석,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출연/소프라노 최영순, 김군해, 김숙희, 신옥수, 안재연, 테너 이성원, 강중석



17일 제35회 무지카비바양상블 정기연주회 '나의 생애로부터'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로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 받고 있는 무지카비바양상블의 무대.

무지카비바양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서울롯데콘서트홀, 임진각 뮤직페스티벌, 러시아, 미국, 몽골, 독일 등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보헤미아 민족주의 작곡가인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스메타나/피아노트리오 사단조 작품 15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 바이올린/박경희(음악감독 겸 리더), 김신실
- 비올라/박주연
- 첼로, 해설/전영희
- 피아노/서혜리

24일 La Muse 아트콘서트 '구스타프 클림트 Kiss, 불멸의 사랑'



예술을 어렵게만 느끼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결성한 앙상블 라뮤즈(La Muse)의 무대.

영화와 음악에 얹힌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풀

어내는 아트콘서트로, 그림과 음악의 완벽한 교감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레하르/‘금과 은’ 왈츠 작품 79

베토벤/교향곡 제6번 '전원' 1악장

베토벤/아델라이데

벨리니/정결한 여신이어

생상/시와 음악 작품 132

말러/교향곡 제5번 4악장 '아다지에도'

- 도슨트/이주희 • 피아노/정아름
- 플루트/황미리 • 첼로/김기도

제9회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유주영 010-6630-5535



부산 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앙상블 '비엔토'의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주영의 무대.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후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유주영은 귀국 후 부산음협 주최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 연주인 시리즈의 솔리스트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독주회 및 피아니스트 성민주와의 듀오무대, 100인의 그랜드 플루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텔레만과 필립 고베르, 드뷔시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성민주



독일 최정상급의 실내악 앙상블로 호평받는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 부산공연.

1991년 슈투트가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창단한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은 1993년 독일 칼스루에 실내악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실내악 단체 중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현악4중주와 슈만 피아노5중주, 피아졸라의 '탱고 발레'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안드레아스, 이수은
- 비올라/로렌츠 운거 • 첼로/테오 브라스
- 현연/김영실(피아노)

기타공연장

게네랄파우제 4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토요일 오후 8:00
(13일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4월 무대.

5일(금) 오후 8:00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 속 재즈 'Jazz Meets Mamma Mia'



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곡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의 OST를 강해진 퀸텟의 재즈 연주로 들려주는 색다른 무대.

국경과 나이를 초월하는 멜로디와 사랑, 삶을 담은 아름다운 가사를 관객들과 함께 나눈다.

- 보컬/정세미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해진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6일(토) 오후 8:00 이달현재즈트리오



볼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부산의 불세출 드러머 윤혁성, 그리고 화려하고 현란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베이시스트 박지원과 함께 하는 재즈음악의 향연.

12일(금) 오후 8:00 기억 '나, 너, 우리의 기억을 노래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시간, 에피소드를 담은 심리상담자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재즈그룹 허쉬밴드가 다양한

장르를 선곡하여 들려주는 스토리 콘서트.

특히 현장에서 사연을 직접 받아 공연 사이사이에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공연과 함께 완성되는 특별한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 보컬/다희 • 피아노/민주신 • 베이스/황대웅
- 드럼/허여정 • 스토리텔러/김선영

13일(토) 오후 7:00 Over the moon '크로스오버의 밤'

클래식에서부터 팝, 영화음악, 재즈, 탱고, 라틴 음악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앙상블만의 색깔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 블리스 앙상블의 무대. '블리스(Bliss)'는 더 없는 행복이란 뜻.

이번 무대에서는 나라별 음악에 집중하여 프랑스의 샹송에서부터 오스트리아의 낭만주의, 미국의

재즈, 멕시코의 춤곡, 아르헨티나의 강렬한 탱고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즐길 수 있다.

- 피아노/공예린 • 바이올린/김유경
- 비올라/박성현 • 첼로/박아진
- 퍼커션/성형원

19일(금) 오후 8:00 Spring breeze



플루티스트 장예지, 첼리스트 변은석, 피아니스트 이혜경으로 구성된 앙상블 튠(Ensemble TUNE)과 게네랄파우제가 공동기획한 무대.

슈베르트, 멘델스존, 포레, 브람스 등 새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들려준다.

20일(토) 오후 7:00 Attic



현악기와 피아노로 구성된 5중주팀 플레이하우스의 무대.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한 '음악적 공간'을 관객에게 선물해온 플레이하우스는 이번 무대에서 'Attic(다락방)'라는

주제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고, 낮고 작지만 위로가 가득한 다락방과도 같은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 바이올린/김수현, 박인성
- 비올라/김지일 • 첼로/김한솔

25일(목) 오후 8:00 어른동화



재즈 뮤지션 김동기가 정규 3집 앨범 '어른동화' 발매 후 마련하는 무대.

'어른동화'는 두편의 음악일기(화랑일기, 서울일기)에 이은

어른을 위한 음악동화로, 우리네 어른들이 살아오며 잠시 놓고 왔던 동심에 온기 가득 채워주는 곡들을 담고 있다.

- 색소폰/김동기 • 기타/김준범
- 베이스/류형곤

27일(토) 오후 8:00 Fusion #4 : Saxophonists of Fusion



홍영호 퀸텟의 퓨전재즈 4번째 시리즈 'Saxophonists of Fusion'.

1960년대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퓨전재즈 장르의 대표적인 색소포니스트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데이비드 샌본, 제럴드 앨브라이트의 음악을 홍영호 퀸텟만의 느낌으로 들려준다.

- 드럼/홍영호 • 베이스/심규환
- 피아노/강해진 • 색소폰/손태호
- 기타/송명기

부경챔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4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경챔버오케스트라 010-3146-8434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독특한 앙상블로 따뜻하고 맑은 음악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결성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력있는 연주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경챔버오케스트라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적인 편곡 작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지휘자 김태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시작으로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과 제2번, 비제 오페라 '카르멘' 간주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첼로/김동준(부경챔버오케스트라 단원)
- 클라리넷/김지후(사하중학교 2학년)

감성 발라드 함께하는 클래식 사랑하는 연인에게

일 시 | 4월 7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사전예매 및 학생 30% 할인)
문 의 | 기린피아노트리오 010-3303-0844



바이올리니스트 이슬기, 피아니스트 배예린, 첼리스트 정은지로 구성된 기린피아노트리오의 무대.

동아대학교 기악학과를 졸업한 이슬기는 다

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로 있다. 배예린은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마음음악회, 경남대학교 오케스트라의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정은지는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기장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광석, 정승환, 성시경, 권진아, 김동률 등 감성넘치는 발라드 가요를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4월 스페이스옴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옴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옴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옴의 4월 무대.

5일(제537회) 듀오메종 Duo Maison Concert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히데오 코보리와 첼리스트 요시아 야마모토로 구성된 ‘앙상블 메종(Ensemble Maison)’의 무대.

지난 2020년 팬데믹 기간에 결성된 피아노&첼로 듀오로, 프랑스어로 ‘집’이라는 뜻의 팀명처럼, 늘 음악이 가득한 집처럼 활동하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선물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2일(제538회) Correspondances-그 사이toi et moi 너와 나

지난 2003년, 프랑스 국립 볼론뉴 국립음악원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파리에서 결성된 한-일 듀오인



메조소프라노 한현미, 피아니스트 호리카와 카나코의 무대.

첫 만남에서부터 그들의 공존된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온 현미와 카나코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연주를 가져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음악을 유럽에 소개하는 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프랑스 파리를 오가며 준비한 이번 한국-프랑스 투어에서는 음악을 계기로 갖게된 이들의 우정이 그 사이(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풀어본다.

19일(제539회) 첼리스트 김규식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in Busan ‘BEETHOVEN II’



클래식과 재즈, 탠고 등 다양한 장르로 자신의 음악 지평을 확장해 온 첼리스트 김규식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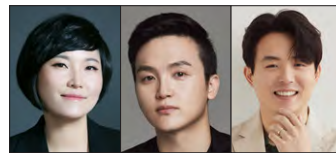
김규식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독일 에센 국립음대 등을 거쳐 영국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실력파 아티스트로, CBS ‘첼리스트

김규식의 폴링 인 뮤직’ MC를 시작으로 KBS ‘클래식 오딧세이’와 ‘찾아가는 음악회’, ‘CBS 금강산 콘서트’ 등 방송활동으로 주목 받았으며, MBC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김규식은 2009년 창단한 무누스앙상블을 15년째 이끌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오모앤코(Duomo & Co)의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에 이은 ‘베토펴’ 시리즈 두번째 무대이다.

• 피아노/신재민

26일(제540) 낭만의 조각들...



서울,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희, 이현옥, 심정운의 렉처콘서트.

바로크 시대 바흐의 서정적인 음악을 시작으로 낭만 시대의 쇼팽과 슈만, 그리고 후기 낭만 시대의 스크랴빈으로 이어지는 낭만적인 피아노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2024 케니 지 월드투어 내한공연

일 시 |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30, 7:30

벵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케니 지(Kenny G) 월드투어 내한공연.

부드럽고 낭만적인 선율로 세계를 사로잡은 케니 지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세계 3대 색소포니스트로, 지난 1994년 제3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악기 연주자 최초 7,500만 장이라는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우며 4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케니 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고전음악들과 자작곡들로 구성되어 발매와 동시에 큰 화제가 된 20번째 정규 앨범 ‘INNOCENCE’ 수록곡을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다.

김재영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4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김재영 010-6296-0885



그동안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해 오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이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갖는 뜻깊은 무대 ‘김재영 바이올린 독주회’.

김재영은 이번 무대에서 따뜻한 봄날의 정취에 잘 어울리는 라벨, 그리그의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라벨/바이올린 소나타 ‘Posthumous’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3

영도에서 떠나는 렉처 콘서트 시리즈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봄의 멜로디

일 시 | 4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역사, 미술, 여행이야기가 함께 하는,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도에서 떠나는 렉처콘서트 시리즈 2024년 무대.

올해는 계절을 주제로,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진행과 뉴재즈 스트링스의 연주로 펼쳐진다.

뉴재즈 스트링스는 국내외에서는 보기 드문 현악기 재즈 앙상블로, 클래식과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매력적인 화성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통해 그들의 독보적인 사운드를 구축하고 있다.

4월 콘서트에서는 ‘봄-클래식과 재즈’라는 테마로 소프라노 강태은이 함께한다.

기타공연장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사람들
제3회 정기연주회 **도전, 감사, 인내**

일 시 |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사람들
 010-9392-5071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 직장인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사람들 정기연주회. 부산사람들은 지난 2022년 4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여왔다.

트럼페터이자 부산사람들 지휘자로 있는 신광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각자 본업이 다른 단원들의 투표에 따라 뽑힌 키워드 '도전, 감사, 인내'를 주제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희망하는 곡이지만, 쉽게 도전하기는 힘든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메인으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신광호
- 리허설 반주 및 음악코치/신세라

국제신문교향악단(KSO) 창단연주회
봄의 소리

일 시 | 4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문 의 | 국제신문교향악단 사무국 500-5222



지역 최초의 신문사 오케스트라인 국제신문교향악단(이하 KSO) 창단연주회.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아 르페필하모닉 오케스트라(2015년 창단)에 이어 신문사 오케스트라로서는 국내 두 번째인 KSO는 강남훈 국제신문 사장이 초대 이사장을,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초대 예술감독을 맡았다. 부산지역의 우수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운영될 KSO는 올해 다양한 형태의 연주로 음악팬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창단연주회는 국제신문이 지난 20여 년간 열여온 '한밤의 유콘서트'를 겸한 무대로, KBS 클래식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자이자 경기클래식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송영훈과 오

테너 한봉수 독창회

일 시 | 4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테너 한봉수 독창회.

한봉수는 VIDA VIDA 성악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며, 그동안 고신의 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해운대문화회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고희(古稀) 기념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영, 이은주, 테너 고성주, 남성중창 I Momenti, 바이올리니스트 한유진, 피아니스트 이아람이 특별출연, 아름다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사가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특별상 3회 수상한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김소율이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KSO의 수장 오충근 예술감독은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2000년부터 24년간 지휘하며 부산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오페레타 '박쥐'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작품 76-2
 브루흐/신의 날 작품 47

마스카니/오페라 '친구 프리츠' 간주곡 등

- 지휘/오충근(예술감독)
- 협연/송영훈(첼로), 김소율(소프라노)

2024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오페라야! 놀자!

일 시 | 4월 13일(토), 5월 11일(토), 6월 15일(토),
 8월 24일(토), 9월 21일(토), 10월 19일(토)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무대를 선보이는 '오페라야! 놀자!' 2024년 무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 문학, 무용, 미술이 담긴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이끈다.

오페라 콘텐츠 전문 '썬사콘느'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마술피리'(4월 13일)를 시작으로 비제 '카르멘'(5월 11일), 베르디 '아이다'(6월 15일),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8월 24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9월 21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10월 19일)가 무대에 오른다.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가야금, 줄 위에서 춤추다

일 시 |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 을숙도에 자리잡은 을숙도문화회관이 노닐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굿모닝콘서트 4월 무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이야

기를 다양한 음악들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12줄의 법금과 산조가야금에서부터 25줄의 개량가야금, 궁중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채로운 연주를 통해 가야금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본다.

- 가야금/이선혜

금정 클래식 워크

일 시 | 4월 19일(금), 20일(토), 25일(목), 26일(토)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은빛샘홀·금샘미술관·야외광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낮공연 전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금정문화회관이 2024년 올해 처음 마련하는 금정 클래식 워크.

금정 클래식 워크(예술감독 손일훈)는 '터치'

즉, 건반악기를 주제로,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나홀간의 음악축제로, 총 14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음악, 재즈와 영화음악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19일(금), 20일(토) 오전 11:00 은빛샘홀 어린이를 위하여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극찬과 함께 2018년 준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손일훈, 정지원의 무대.

- 19일/박종해, 손일훈
- 20일/정지원

19일(금) 오후 7:30 금빛누리홀
 김다솔 리사이틀 '슈만&쇼팽'

ARD 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빈 베토벤 국제 콩쿠르 등 주요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 김다솔은 19세기 낭만주의 피아노음악을 대표하는 두 작곡가 슈만과 쇼팽의 곡을 들려준다.

20일(토) 낮 12:30, 오후 1:15 금샘미술관
 프로젝트 함스 '단 한번 뿐인 순간'

20일(토) 오후 2:00 은빛샘홀
 정지원 피아노 리사이틀 '일루미네이션'

20일(토) 오후 6:00 금빛누리홀
 바로크와 고전 사이, 질풍노도

지휘자 권민석과 시대악기 전문연주단체인 '알테 크무지크서울', 그리고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박종해, 김다솔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을 비롯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작곡가들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을 끝나고 난 후에는 야외광장에서 봄밤에 어

울리는 안상준, 김지훈 듀오의 재즈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25일(목) 오후 7:30 금빛누리홀
 WE필하모닉스 '영화음악과 클래식'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원을 주축으로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젊은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WE필하모닉스의 무대.

클래식계에서 이례적으로 앙코르, 파이널 공연까지 매진 신화를 이뤄낸 WE필하모닉스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음악과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26일(금) 오후 2:00 은빛샘홀
 배진우 피아노 리사이틀 '패러독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차세대 피아니스트 배진우의 무대.

26일(금) 오후 7:30 금빛누리홀
 피아노 트리오 '베토벤&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첼리스트 문태국,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로,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가 끝난 후 야외광장에서는 김동기 트리오의 재즈연주가 펼쳐진다.

늘보들의 동행 일흔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 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늘보들의 동행 010-5858-5757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동호회 '늘보들의 동행'이 마련하

는 정기연주회.

'늘보들의 동행'은 '태양이 꽃을 물들이듯 예술은 인생을 물들인다'라는 영국 존 러벅경의 말처럼 예술이, 음악이, 우리 인생을 곁에 물 들어 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며 매월 노래와 연주, 시낭송 등 다채로운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주회 일흔 일곱 번째를 맞아 매월 셋째주 토요일 '늘보들의 동행' 전용음악실인 이지홀에서 열리던 연주회를 특별히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옮겨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한다.

- 사회/김성규 • 반주/서효정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영도의 올림

일 시 | 4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 지역 출신의 젊은 음악가의 무대로 꾸며지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4월 무대 '영도의 올림'.

영도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수요상설공연

onStage를 통해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소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도라는 공간과 시간을 영위해온 지역 청년 예술가의 노래와 무대를 통해 색다른 감동의 경험을 제공한다.

- 소프라노/김찬미, 변세경, 송찬희, 정인애
- 카운터 테너/김종수
- 테너/서상미 • 바리톤/서길현
- 피아노/권예진, 김유진, 박시현, 신솔아, 홍여진, 황은우

2024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 콘서트 선율로 영화를 말하다 PART II 조성우

일 시 | 4월 24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4월에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로 한국영화음악을 발전시킨 한국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여고괴담2', '형사: Dualist', '천문' 등 아름다운 선율로 영화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영화 OST를 코리아 필름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부산클래식기타 사랑방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7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클래식기타 사랑방 010-3872-1915

지난 2010년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결성한 부산클래식기타 사랑방의 정기연주회.

오랜 세월 실력을 다져온 회원들이 정과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부산클래식기타 사랑방은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및 중주, 앙상블, 합주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빌라보보스, 타레가, 소르, 피아졸라, 바흐, 줄리아니 등 클래식기타 명곡에서부터 영화 OST, 동요, 가요 등 친숙한 선곡으로 클래식기타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그 때 만난 것은,
내 일생의 행운이야

일 시 | 4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소개하는 지브리 음악의 세계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4월 무대.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

리스트 이석민, 소리모아앙상블 단원 및 악장으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신혜원이 우리 귀에 친숙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준다

• 첼로/이명로, 이석민

• 피아노/박민희

• 플루트/신혜원

울속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시리즈Ⅳ
전원경의 모네가 그린 봄

일 시 |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영화와 클래식 명곡의 만남, 울속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네 번째 무대. '모네가 그린 봄'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파 화가인 오스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모네는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사람으로, '빛은 곧 색채'라는 말이 모네를 통해 생겨났듯 인상주의 양식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원경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포레 '파반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봄' 1악장, 비발디 '사계' 중 '봄' 3악장 등 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영화와 클래식 명곡의 만남, 울속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네 번째 무대.

'모네가 그린 봄'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파 화가인

오스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모네는 인상파 양식의 창

시자 중 한사람으로, '빛은 곧 색채'라는 말이 모네를 통해 생겨났듯 인상주의 양식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원경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포레 '파반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봄' 1악장, 비발디 '사계' 중 '봄' 3악장 등 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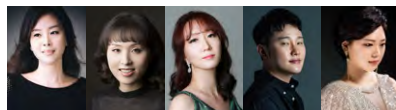
문 의 |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010-8544-9810

피아노의 표현영역을 무한히 확장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의 음악을 깊이있게 연구하고자 결성된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정기연주회.

전국 7개 지부, 430여명의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한국리스트협회는 그동안 연주와 교육, 콩쿠르,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리스트의 작품세계를 알리는데 힘써오고 있다.

'협주곡의 밤'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지선, 김해리, 김선영, 추교준, 김현정이 우리에게 친숙한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생상,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을 들려준다.

선사인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서거 120주년 기념
신세계로부터

일 시 | 4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선사인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행복과 감정을 소통하는 선사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 서거 12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비롯해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이탈리아풍의 서곡 라장조 D.590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K.622 2악장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72 제2번(영화 '밀정' OST) 등

• 지휘/원준연 • 클라리넷/손기영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세레나데

일 시 |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격월로 마련하는 상설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4월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바로크의 거장 비발디와 '첼로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피아티,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던 쇼스타코비치 등 봄날의 꽃차와도 같이 화사한 첼로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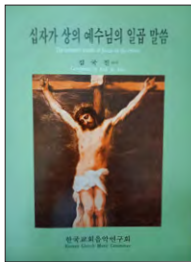
월간 객석의 송현민 편집장이 해설을 맡고 첼리스트 이강호, 홍승아가 연주를 들려준다.

• 해설/송현민 • 첼로/이강호, 홍승아

• 피아노/이민영

사월의 등꽃음악축제 24
김국진 작곡가의 칸타타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일곱 말씀

일 시 | 4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김국진한국음악연구소 010-6577-3255



서양악기를 통해 한국의 소리를 연구한 작곡가 김국진의 칸타타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일곱 말씀'. 김국진 선생의 많은 종교음악곡 중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4월에 의미있는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들을 칸타타로 구성,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 소프라노/이민희, 정혜리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성민기
- 바리톤/박순기, 안세범
- 피아노/김성희

프랑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
가족음악회

일 시 | 4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을 위한 창'의 도시인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의 금관 파트 단원들로 구성된 프랑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의 부산무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특별히 가족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OST, 팝 메들리까지 프랑스 특유의 시원함과 색채감이 있는 브라스 앙상블의 신나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 퍼커션/플로리안 이조르슈(리더)
- 트럼펫/토마 메스트르, 알렉상드르 클로스, 다비드 뷰자봉, 줄리앙 리에펠
- 트럼본/바스티앙 풍사르, 기욤 르보브스키, 유세프 에사와비
- 튜바//가브리엘 라공브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7월 2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중이. 로또 인생 한바탕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진상들을 맞닥뜨리며 K손님과 맞서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 유쾌하게 펼쳐진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일 시 | 3월 28일(목)-7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5/7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본격 빙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연애 고자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엔 알고 보니 귀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여자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리고 이승을 떠돌며 버킷리스트를 채워가고 있는 귀신, 한 지붕 두 사람과 한 귀신이 펼치는 바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진다.

2024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 시 | 3월 29일(금)-4월 7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6:30(4월7일은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문 의 | ㈜인터파크트리플 950-6500



6년만에 한국어버전으로 돌아온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5세기 파리,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 파직모도, 대주교 프롤로, 근위 대장 페뤼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15세기 파리의 혼란한 사회상과 부당한 형벌 제도,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조명하는 탄탄한 서사를 바탕으로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주옥 같은 음악,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의 시(詩)와 같은 가사들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

일 시 | 4월 2일(화)-1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3:00(5일 오후 2:30, 7:30, 10일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공연으로 유명한 뮤지컬 '스쿨 오브 락' 월드투어 부산공연.

배우 잭 블랙이 열연한 동명의 음악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으로, 2015년 브로드웨이 초

연 당시 음악을 맡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5성급 업적'이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초연 이후 5년 만에 부산을 찾는 '스쿨 오브 락'은 두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오페라, 록 발라드 등 장르 불문 명곡이 이어진다. 웨버는 원작에 사용된 3곡에 새로 작곡한 14곡을 추가해 강렬한 넘버를 완성했다.

기타공연장

극단새벽 단막 레퍼토리 모음 RE;PLAY 우리시대의 삽화본의 소리

일 시 | 4월 4일(목)-27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호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단체 10명
이상 2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051-245-5919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극단새벽이 그동안 기획무대로 선보여온 단막극 모음 시리즈 '우리시대의 삽화' 중 4편의 작품을 선별, 상연하는 'RE;PLAY 우리시대의 삽화'.

이번 무대에서는 '잠에서 깨어나기(프랑카 라메, 다리오 포 작)', '다리 위에서(서현철 작)', '회사생활(정선옥 작)', '비 오는 날의 선술집(이성민 작)' 등 198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상연된 4편의 단막극을 묶어 선보인다.

워킹맘, 노년과 청년세대, 회사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시대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웃프게,

또 묵직하게 한 장의 삽화처럼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로, 과거에 창작된 이야기들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현재를 들여다보게 한다.

'잠에서 깨어나기'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한 여성의 고군분투를 해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며, '다리 위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과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삶을 돌아보게 한다.

'회사 생활'에서는 차마 내밀지 못하는 사직서를 한쪽 주머니에 품고 살아간다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비오는 날의 선술집'은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목격한 울림으로 그려낸다.

한편, 5월 16일부터 두달간은 극단새벽 단원들이 새로이 창작한 단막극을 모은 '2024 우리시대의 삽화'로 관객들과 만난다.

-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이현식, 전상미, 김기백, 김다애
- 기획/변현주, 김아람

2024 앤서니 브라운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일 시 | 5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처 070-7807-0701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우리 아빠 최고야'는 아빠와 함께 사라진 엄마를 찾아 떠난 주인공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흥겨운 음악과 율동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지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빠들을 대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로, 아빠의 사랑과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전한다

뮤지컬 점프

일 시 | 5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6:00,
5일 일요일 오후 2:00, 5:00
KBS 부산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36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35% 할인)
문 의 | 쉼터하랑이엔티 1800-6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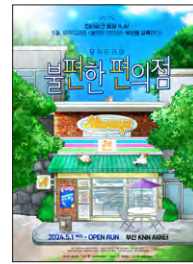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들어온 도둑들의 엉뚱한 해프닝을 그린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도와 태권 동작을 중심으로 동양무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에 유쾌한 코미디가 더해져 대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점프'는 2003년 초연 후 영국 웨스트엔드 4년 연속초청공연(2006년~200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년 연속(2005년~2006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공연 최초로 한국무역협회에서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공휴일 일정 문의)
KNN시어터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이번에 센텀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연극은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마로, 감각적인 선율,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4월 아카데미 시네마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시네마룸
4월 12일(금), 26일(금) 오후 2:00
우동볼
문 의 | 시네마룸 010-2774-3455



1일(월) 연노운 시네마: 보이 지 않는 영화_영화의 거리

- 강사/김민근(감독, 김영광(평론가))

8일(월) 이성훈의 도나우강 자전거 여행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12일(월) 롤랑바르트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 강사/정병언(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26일(월) 머릿속 전시회_서울 부산 도보 여행기

- 강사/박기철(경성대학교 교수)

29일(월) 엔딩 노트_그는 금빛날개를 타고 갔다

- 강사/이기숙(신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다임매터스 대표)

5일(금), 19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4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고전, 낭만주의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바그너 오페라 '반지 4부작' 특집을, 매주 주말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반지 4부작' 특집)/다큐 '글로벌 바그너, 바이로이트에서 세계로!'(5일~6일), 오페라 제작과정 '뉴욕메트 메이킹 필름'(12일~13일), 반지 1부 '라인의 황금'(19일~20일), 반지 2부 '발퀴레'(26일~27일)

콘서트/브람스 교향곡 제4번(1일, 6일),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R. 슈트라우스 '가

정 교향곡'(8일, 13일), 함부르크필 개관 기념공연 실황(15일, 20일), 명곡 비교감상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22일, 27일), 베를린 필 제야음악회 실황(29일, 5월 4일)

일요특선 콘서트/실내악 실황1(7일), 발레 실황(14일), 실내악 실황2(21일), 실내악 실황3(28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관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세계적 우리음악-종교제례악 유럽 연주회 실황

아일랜드 켈틱우먼 라이브콘서트

앙드레 류-뉴욕 공연 실황

한국 창작가곡의 매력 '마중, 잔향, 첫사랑'

파리 올림픽 기념 '생상스, 드뷔시의 생애와 음악'

작곡가 탄생지 다큐여행 '오스트리아, 슈베르트와 가곡 보리수'

오페라감상실_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제19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꽃'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관 9층 문화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출연/김유신 시낭송가, 김병래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
- 연주/소프라노 박지영, 클래식기타 고충진

어느 봄날,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일 시 | 2023년 12월 23일(토)-

2024년 4월 21일(일) 동구문화플랫폼

입 장 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5천원, 어린이, 청소년(만 24개월 이상~만 18세 이하) 1만2천원

문 의 | 동구문화플랫폼 070-7008-8905



포르투갈 출신의 사진작가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풍물, 정물을 매체로 사진, 영상, 스톱모션 등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지닌 사진작가로, 곁 속 세계같은 파스텔톤 사진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입장마감 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2024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본세 시즌2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일 시 | 4월 24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대학의실(중구 신동아빌딩 5층)

문 의 | 상지건축 240-1529



문화유목민 정두환 지휘자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시즌2.

2024년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일환으로 열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베토벤, 슈베르트 등 거장들의 클래식,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 독주, 김광석과 양희은 등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과 철학, 역사,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다.

4월에는 '화목하게/트리오(Trio)의 세계'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재개관 기념 특별전 '봄의 피크닉' 레플리카

일 시 | 3월 20일(수)-4월 30일(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재개관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전.

생동감 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빛을 활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풀어 놓았던 인상주의를 대표하

는 작가 피사로, 모네, 르누아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레플리카 전시이다.

레플리카(Replica)는 '모방하여 만든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기존 명화를 최대한 원작과 가깝게 복제하여 쉽게 만날 수 없는 세계 명화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북행

허성관 지음 / 인문서원 / 2만2,000원

“끝을 알 수 없는 대평원, 장엄한 산하, 생면부지의 다정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은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주제를 정해 역사 현장을 발과 눈으로 확인하는 답사는 청춘을 되살리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책을 통해 역사적 근거를 찾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이 확실하다.” 동아대학교 교수,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하고 줄곧 역사 연구에 매진해온 허성관 저자가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뚫아보는 인문 기행서를 냈다. 2013년 북경에서 산서성 대동과 태원을 거쳐 태항산맥을 따라 남하하여 하남성 안양까지 답사한 여행이 시작이었다. 이후 2018년까지 매년 광활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적지들을 찾아 장장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대한 답사 여행을 다녔다. 이 책에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하북성, 하남성, 산둥성 등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된 답사 지역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상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동북아를 무대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낸 우리 조상들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며 찬탄과 비탄이 교차하는 저자의 답사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알고 보면 반할 매화

이종목 지음 / 태학사 / 2만2,000원

이름난 매화를 보고 왔다. 엄동설한을 뚫고 꽃을 피우는 매화에 감동했다. 매화 사진 촬영 명소는 이곳이다... 인터넷 공간에 이런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곧 봄이 온다는 소식이다. 우리가 매화 소식에 솔깃해지는 데는 길고 긴 역사가 있었다. 선비의 운치 있는 삶을 좋아하는 국문학자 이종목의 ‘알고 보면 반할 매화’가 조선 선비들의 매화 사랑의 세계로 안내한다. 매화는 사군자 ‘매란국죽’의 첫 자리에 놓여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와 산문을 통해 남긴, 매화를 사랑하고 즐기던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매화를 키우는 다양한 방법, 벗들을 불러 한겨울에 피운 매화꽃을 함께 감상하는 매화음, 매화를 벗으로 삼은 이, 매화를 아내로 삼은 마니아들, 조선의 5대 명품 매화까지, 조선 선비들의 매화 문화사가 운치 있는 매화 그림과 함께 활짝 피어나는 책이다. 조선의 문사들처럼 저자 역시 매화를 사랑한다.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름난 매화를 직접 찾아가 눈으로 꽃을 보고 코로 향을 맡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더욱 사랑하는 것은 옛글 속의 매화니, 결국 내 가슴속의 매화인 셈이다. 옛글을 통해 내 가슴속에 피어 있는 매화를 보이고자 한다.”



북유럽 미술관 여행

이은화 지음 / 상상출판 / 2만원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의 복지나 휴게 등의 라이프스타일 뿐 아니라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자연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북유럽 미술관 및 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간 30곳을 선별해 안내한다. 저자 이은화는 미술과 관계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전도사’이자 미술관에 대해 강의하고 책을 쓰는 ‘뮤지엄 스토리텔러’이다. 이 책 직전에 낸 <사연 있는 그림>도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북유럽 미술관은 서양미술사를 장식한 거장들뿐 아니라 동시대 미술의 스타 작가는 물론, 북유럽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미술 애호가들의 걸음이 북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다. 30곳의 공간은 버려진 산업시설을 재활용한 곳부터 귀족의 저택을 개조하거나 3,900원짜리는 그릇에서 영감을 얻은 건물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각 미술관의 대표작과 그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도 흥미를 자아내며,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의 경향까지 살필 수 있다. 미술은 물론 저자의 경험이 담긴 여행적 요소를 통해 북유럽 미술관의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April 2024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 학생 눈높이 맞춤 공연으로 인기



부산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진행하는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가 올해로 5년 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만난다.

지난 2020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초등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계기로 시작된 ‘꿈꾸는 예술학교’는 그동안 공연장, 학교 등에서 총 396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8만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공연 관람을 통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며, 10개의 공연 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평일 오전 60여 회 진행된다.

우선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 밖 합창여행’은 교과서 수록곡, 오페라와 뮤지컬, 가요, 가곡 등 다양한 곡들을 합창, 중창, 독창으로 들려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지그재그 음악놀이’는 귀에 익은 동요와 마술, 영상이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놀이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은 국악실내악, 악기별 중주곡 등을 통해 신명넘치는 국악의 매력을 선사하고, 올해 새

롭게 선보이는 ‘영도 할매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떠나는 영도의 국악사계’는 마리오네트 인형과 함께 영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를 둘러보고 국악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은 클래식 명곡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하모니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22년과 2023년 큰 화제를 모은 토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이어 올해는 신작 ‘마술피리’를 준비하고 있다. ‘마술피리’는 두 번째 오페라 기획공연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 성악가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이다. 화려한 영상과 유쾌한 스토리, 청소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자막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학생들에게 오페라의 매력을 알려주고 분장 체험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7월 본 공연에 앞서 4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공연을 구성하여 초·중·고등학생 등 전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어린이 뮤지컬 ‘미운오리새끼’로 큰 인기를 모은 부산시립극단은 9월, 초등학생들을 위해 신작 ‘해방자 신데렐라’로 어린이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카 솔닛의 동화를 각색하여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이번이 한국 초연이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진보적 여성 운동가로 알려진 나혜석의 삶을 그린 ‘음악극 나혜석’을 준비한다. 이 작품은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원형 객석을 만들어 관객의 재미를 더해주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밖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3일과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우리 아이 음악회’와 부



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5월 3일)가 준비되어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꿈꾸는 예술학교’는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회관 등에서 진행되며, 올해의 첫 공연인 토크오페라 ‘마술피리’는 4월 24일 부산시민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전화 예약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051-607-3113, 3115)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지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프론트 개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극장 로비 프론트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사업에 따라 기존 4개소에서 7개소의 프론트가 설치되어 티켓 안내 및 발권에 따른 관객들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미디어 월, LED스크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수 있다. 또, 수많은 관객들이 오가는 공연장 로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중 바닥구조인 Access Floor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대극장 로비 프론트 개선사업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다.

<2024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안무자 공모 박재현 ‘수선되는 밤’ 선정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현대무용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한 ‘2024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부산·경남권 안무작 공모에서 부산 안무가 박재현의 <수선되는 밤>이 선정됐다.



‘지역상생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무용단(단장 김성용)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동시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주제의식을 담은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올해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하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 등 파트너 극장 4곳과 협업으로 진행됐다.

부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안무가 박재현은 2016년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해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00년 제18회 KBS 부산 무용콩쿠르 대상, 2011년 크리티क्स 초이스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선정, 2012년 제21회 부산 무용제에서 <노년의 기록>으로 대상, 2020년 제16회 부산 국제무용제 AK21 국제 안무가 육성경연에서 <굿모닝 일동씨>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박재현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역상생 프로젝트 안무가로 공식 선정되었으며 그의 작품 ‘수선되는 밤’은 앞으로 3년간 국립현대무용단의 레퍼토리로 개발 될 예정이다.

한편, ‘수선되는 밤’은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현대무용단의 연습 지원, 제작과정 협력을 거쳐, 9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영 중단 안내

부산문화회관과 대연역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4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오니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
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
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권은 일반 관람객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성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에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2024년 4월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2024년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2024년 6월 6일(목),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2024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오페라 <나비부인>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NT Live

2024년 9월 28일(토), 11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2024년 10월 중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젯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초청공연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한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한원우

※ 회원명 가나다순

2024 시민 뜨락 축제

일시

2024. 4. 26. ~ 5. 17.
매주 금요일 12:10 ~ 13:0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사회

김동현 MBC 아나운서

도심 속 문화 쉼터,



4. 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라루체

5. 3.

위나재즈밴드
조아합창단

5. 10.

씨니문재즈밴드
에클레토

5. 17.

친친탱고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시민뜨락축제



2024. 4. 26. ~ 5. 17. (매주 금요일)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카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 3. 25(월)~4. 19(금)
- 참여방법 : OR코드 접속- 정답 기입-제출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4. 24(수)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4.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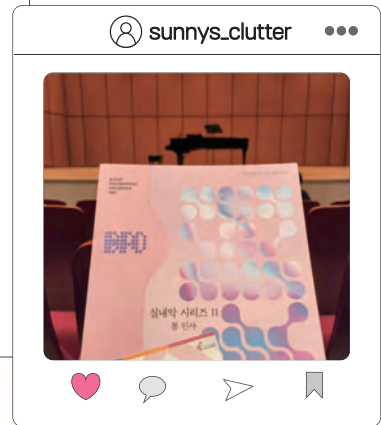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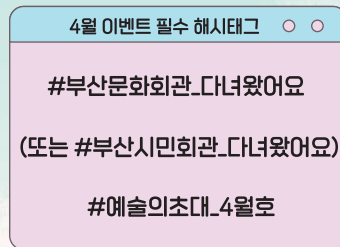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4.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미술관 옆 콘서트홀



숲의 정령 05.10(금)

젊음과 바다 07.19(금)

헤어짐과 그리움 09.06(금)



MUSIC & ART LECTURE CONCERT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후 7시 30분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EBS 인기 방영작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클래식 사파리

© GRAFIZIX EBS SBA

악어의 양치시간

2024. 4. 20.(토) 11:00a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제작 | THE BRIDGE COMPANY

티켓 | 전석 30,000원

관람연령 | 전 연령 관람가능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tickets.interpark.com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World NO.1 Musical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뮤지컬!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INTERNATIONAL TOUR

2024. 5. 11.(토) ~ 12.(일) 11시, 1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티켓 | VIP 55,000원 R 44,000원 S 22,000원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tickets.interpark.com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정치학자

김지윤

**4.13.(토)
15:00**



인문학적 패러다임:공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ARS 1번)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주최 | 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생태학자

최재천

**5.3.(금)
15:00**



뇌과학자

정재승

**8.31.(토)
15:00**



사회복지학자

이지선

**6.29.(토)
15:00**



미술사학자

양정무

**11.30.(토)
15:00**



영화평론가

이동진

**9.28.(토)
15:00**

